

인문대 광역생들의 진입과  
진입 후 학교생활을 도와줄!

☆ 2019 ☆

# 광역 백서

☆ 광역제도 용어 알아보기 ☆  
전공진입이란?  
학과 소개 + 전공 강의평  
선배들의 인터뷰

제36대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시작을 알리는 소리, 고동

## ◆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인문대 학생회 복지국입니다. 지금 광역백서를 읽고 계신 19학번 인문대학 광역생, 예약생 새내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역백서는 광역생 학우분들의 학교생활 및 전공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예약생 학우분들께서도 읽어보신다면 ‘인문대의 광역제도’를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간 중간 학과소개와 강의평 등 예약생과 광역생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도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 뿐 아니라 진입하실 때까지, 진입하신 이후에도 소중히 간직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광역생 학우분들은 진입에 관한 정보 부족, 인적 네트워크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꾸준히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인문대 학생회 복지국은 광역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인문대와 꾸준히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광역생 새내기 여러분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이번 광역백서를 시작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광역제도에 관한 여러분의 고민/질문/제안을 항상 기다리겠습니다.

## ◆ 목차

1. 광역제도&전공진입 알아보기	3
2. 학과별 소개	14
3. 17·18학번 광역 진입생 인터뷰	36

: 시작을 알리는 소리

# 광역제도 & 전공진입 알아보기

## ◆ 광역제도 소개

1. 인문대는 매년 전체 신입생의 **절반** 정도를 광역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광역생**은 특정한 학과가 아닌 인문계열 소속으로 입학하는 학생이며, 지원 당시 특정 학과를 선택해서 입학한 학생은 **예약생** 이라고 부릅니다.
2. 광역생은 전공탐색기간을 거친 후, 1학년 2학기 때부터 **전공진입 (=학과배정)**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원하는 학과에 진입하게 되면 이후에는 **진입생**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3. 인문대에서는 광역생이 예약생 및 진입생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선발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과/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문대 16개 학과에는 반이 하나씩 있으며, 반의 성격과 운영은 학과와 무관하게 학생들이 자율적인 영역입니다. 각 학과의 반은 임의로 배정된 광역생 절반, 그리고 그 학과의 전공 예약생 절반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학생들은 반 구성원과 함께 대학생활을 시작하며, 반 학생회, 장터, MT 등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함께 대학생활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반 제도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전공을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광역생이 이후 학과에 진입했을 때 해당 반의 예약생들과 친해지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 학과배정 공지문

-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전기 2차 학과배정 시행계획 및 안내문입니다.
-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전공진입 Q&A, 이것만 읽으면 바로 이해됩니다!'를 읽어보세요.

### 2019학년도 전기 2차 인문대학 학과배정 전형 안내 [대상 : 광역 입학생(2018학번), 2017학번 이전 미진입생]

2018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의 전공·학과 진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빠짐없이 학과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 배정 대상 : 광역(인문계열)

- 전기 전형 : 입학한 후 2학기 이수(24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은 학과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후기 전형 : 입학한 후 3학기 이수(3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은 반드시 학과배정 신청하여야 한다.

#### 2. 배정 정원

각 학과별 배정 정원은 최대 34명으로 한다.

다만 정원 외 입학생의 학과 배정은 정원 외로 한다.

(단위 : 명)

학 과(부)	수시 입학생 (학과 기배정)	광역 (전기 1차 기배정인원 포함)	배정 정원
국어국문학과	15	19	34
중어중문학과	12	22	34
영어영문학과	15	19	34
불어불문학과	10	24	34
독어독문학과	10	24	34
노어노문학과	10	24	34
서어서문학과	10	24	34
언어학과	10	24	34
아시아언어문명학부	10	24	34
국사학과	12	22	34
동양사학과	10	24	34
서양사학과	10	24	34
고고미술사학과	10	24	34
철학과	12	22	34
종교학과	10	24	34
미학과	10	24	34

### 3. 배정 방법

- 가. 전기, 후기 전형에는 각각 제1차, 제2차, 두 번의 배정 신청 기회가 있다.
- 나. 제1차 배정 신청에서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학과를 정하여 신청한다.  
(3개 지망학과는 모두 달라야 한다.)
- 다. 제1차에서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은 제1차에서 지원하지 않은 나머지 학과를 대상으로 제2차 배정 신청에서 다시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학과를 정하여 신청한다. (3개 지망학과는 모두 달라야 한다.)
- 라. 제2차에서도 학과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은 미 총원된 학과 중 한 학과를 택하도록 한다.
- 마. 3학기를 이수하고도 학과 배정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미총원 학과를 대상으로 임의 배정할 수 있다.
- 바. 2학기 수료하고도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3학기 수료하고도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도 학과 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성적 평가와 우선순위 등 선발 기준은 해당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다.
- 사. 학과 배정 신청 기회가 있었음에도 학과 배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학과에 진입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학생의 원래 신청 연도의 미총원 학과에 배정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입학한 후 군 입대나 현저한 질병·사고에 의한 입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학과 배정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하고 휴학한 후 복학하여 처음으로 학과배정 신청을 하는 학생은 당해 연도 학과 배정 대상 학생으로 간주하되, **해당 학과에 당해연도 이전 5개 학번 배정인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이의 총원으로 간주하며, (2018년 11월 추가된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유발생의 근거는 학생이 증명하여야 한다.

### 4. 배정 기준

- 가. 제1지망 학생 중에서 각 학과의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하고, 선발 후 여석이 있는 학과의 경우 제2지망 학생 중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선발한다. 여기서 또 다시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지망 학생 중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선발한다.
- 나. 나머지 배정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각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다.

### 5. 학과배정 일정

- 가. 전형일정

학과배정 전기 2차		비고
1지망	- 접수: 2019. 1. 7.(월) ~ 1. 8.(화) - 면접: 2019. 1. 9.(수) ~ 1. 10.(목) - 발표: 2019. 1. 14.(월)	각 학과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참고
2지망	- 접수: 2019. 1. 15.(화) ~ 1. 16.(수) - 면접: 2019. 1. 17.(목) ~ 1. 18.(금) - 발표: 2019. 1. 21.(월)	
3지망	- 접수: 2019. 1. 22.(화) ~ 1. 23.(수) - 면접: 2019. 1. 24.(목) ~ 1. 25.(금) - 발표: 2019. 1. 28.(월)	

- 나. 최종선발자 발표 : 2019. 2. 1.(금), 각 학과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서 확인

다. 2차 전형 일정 : 2019. 1. 7.(월) ~ 1. 28.(월) 예정

라. 최종선발승인 : 2019년 2월 이내

## 6. 제출서류 및 제출처

가. 제출서류 : ① 학과배정 신청서(소정 양식)

② 2018년 2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③ 2018년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내역(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웹사이트 출력본)

④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소정 양식)

⑤ 기타 각 학과별로 요구하는 서류(각 학과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참고)

나. 제출처 : 지원학과 사무실



# 고동

: 시작을 알리는 소리

## ◆ 학과배정 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양식

-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전기 2차 학과배정 시행계획 및 안내문입니다.
-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전공진입 Q&A, 이것만 읽으면 바로 이해됩니다!'를 읽어보세요.

### 학과배정 신청서

(전기) 1차 , 2차

(후기) 1차 , 2차

#### 지망 사항 및 입학구분 표기

- 1지망  2지망  3지망
- 입학구분 : 정원내  (수시, 정시) 정원외  (농어촌, 외국인, 영주자, 기회균형, 특수교육대상자)

#### 인적사항

- 이름 \_\_\_\_\_ (서명)
- 학번 \_\_\_\_\_
- 소속 기초과정 반 \_\_\_\_\_
- 소속 기초과정 반 주임(지도)교수 확인 \_\_\_\_\_ (서명)
- E-mail : \_\_\_\_\_ 전화 : \_\_\_\_\_

#### 진입 희망 학과

- \* 지망하는 학과의 이름을 쓰십시오.
- 지망 학과 \_\_\_\_\_

#### 비고

- 각 학과에서 정한 진입신청 요건을 숙지하고 신청하십시오.
- 각 학과에서는 학과의 교육능력과 학생의 전공적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 심사 방법은 각 학과에서 정합니다.
- 첨부서류  
(1) 2018.2학기까지 성적증명서 ( )  
(2) 201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내역 ( )  
(3)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 )  
(4) 기타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서류 ( )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 [전기] 1차□, 2차□ [후기] 1차□, 2차□
- 1지망 □ 2지망 □ 3지망 □

이름 : \_\_\_\_\_ 학번 : \_\_\_\_\_

지망 학과 : \_\_\_\_\_



\*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도 좋습니다.

## ◆ 전공진입 Q&A, 이것만 읽으면 바로 이해됩니다!

Q. 학과배정 시스템을 설명해주세요.

배정 시스템은 1년 단위로 운영되며, 해당 년도의 2학기가 전기 학과배정, 다음 1학기가 후기 학과배정입니다. 18학번 학우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2019학년도 배정의 경우, 2018년 2학기 진입이 전기 전형, 2019년 1학기 진입이 후기 전형이었습니다. 전기 전형도는 다시 1차 2차로 나뉘고, 후기 전형도 1차 2차가 있으며 각 차마다 1,2,3지망씩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진입 신청 기회가 12번 있는 셈입니다. 매년 인문대 웹사이트에 공지가 올라오는데, 전기 1차는 11월 공지 - 12월 시행, 전기 2차는 12월 공지 - 1월 시행, 후기는 1,2차 모두 5월 공지 - 6월 시행입니다.

중요한 건 매년 전공진입 시기에 모든 학번이 전공진입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선발 인원은 그 해 신입생들을 기준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즉, 2020학년도 각 학과의 광역생 배정 인원은(학과별로 상이, 19명-25명) 19학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18학번 이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8학번 선발 인원은 이미 작년, 즉 2019학년도 전공진입에서 공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19학번 광역생 분들의 쿼터는 2020학년도 전공진입 시행에서 결정되며, 향후에는 각 전형마다 지난 전형에서 19학번들이 진입하고 남은 쿼터 (25명에서 20명을 선발했다면 5명을 더 받겠죠?) 에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Q. 전기와 후기, 1차와 2차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전기와 후기의 차이점은 시행학기가 다르다는 것이며, 전기 1차와 2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차는 학기 중, 2차는 방학 중에 시행하기 때문에 2차 때는 2학기(전기 1차 진입을 시행한 학기) 성적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후기 1차와 2차도 마찬가지로 학기 중, 방학 중이기 때문에 2차에서 1학기(후기 1차 진입을 시행한 학기) 성적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진입 시기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늦게 지원할수록 이 과가 맞는지 고민할 시간이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다만 경쟁률이 높은 학과의 경우 전기에 인원을 대부분 선발하기 때문에 (작년 영어영문학과의 경우 19명 쿼터 중 16명을 전기에서 선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결정을 내렸다면 빠르게 진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왜 전형 한 번에 3차까지 있는 건가요? 각 시행마다 쿼터가 있나요?

최대한 많은 학생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전형 지원과 서류 일정이 짧은 대신, 여러 번 시행함으로써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죠. 1,2,3지망은 일정이 전혀 겹치지 않기 때문에 1차에 한 과를 지원해서 떨어지면 2차에 지원하고 3차에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문에서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세 지망을 각각 다르게 신청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고 보통 1지망에서 진입을 성공하십니다. 다만 원하는 과를 떨어졌다고 해서 일부러 다른 과를 골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즉 전기 1차에서 한 과에 떨어지면 전기 2차나 후기에 재 지원하면 되는 것이죠. 전기/후기, 그리고 각 차시마다 쿼터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지원인원에 따라 선발인원이 달라집니다. 각 전형이 끝나고 남은 인원은 행정실로부터 정보를 받아 주기적으로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Q. 정원 외 입학생이란 어떤 학생들을 의미하나요?

정시 선발전형, 수시 선발전형의 광역 선발 인원 외에 글로벌인재특별전형, 정부초청장학생, 기회균형선발전형(1,2)으로 입학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정원 외 입학생인지 헷갈리시는 분은 인문대 행정실에 연락을 취해 확인하세요!

Q. 어떻게 전공진입을 준비하나요? 심사기준이 따로 있나요?

광역생 선발기준은 각 학과마다 다르며, 선발 인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면접 방식도 대면 면접, 전화 면접 등 여러 방식이 있고요. 하지만 서류 작성을 할 때는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비로 학과배정 신청서(다운받아 작성), 성적증명서(마이스누 출력), 수강신청 내역(마이스누 캡처),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다운받아 작성 - 자신의 지원 동기와 학습 계획 등을 작성), 기타 학과별로 요구하는 서류(주로 보고서)입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진입요건 잘 살피기(전기의 경우 해당 학기 포함해서 24학점 이상을 채웠는지, 후기는 36학점 이상 채웠는지), 서류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적당한 분량으로 서술했는지 등입니다. 특히 지도교수님 서명은 신청기간 직전에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꼭 선발 일정 전에 여유 있게 찾아가서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저는 아직 학과를 못 정했는데 나중에 진입하면 안 될까요?

학과를 정하지 못했다면 시간을 가지고, 여러 전공을 들어보고 가장 적성에 맞는 것을 선택하길 추천합니다. 반드시 1학년 2학기, 혹은 2학년 1학기에 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전공을 들어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고, 인문대 내에서는 전과하기도 어려운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택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는 것이 광역생에게 유리한 점이기도 하죠. 다만 결정된 게 있다면 진입은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늦게 진입할수록 먼저 진입하는 같은 학번 광역생들에 의해 쿼터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Q. 전공을 선택했고 강의도 듣는데 진입하지 않고 그냥 광역생(계열생)으로 있어도 되나요? 장학금 대상인원을 감안해서, 혹은 더 다양한 전공을 수강하고 싶어서 등 개인적인 이유로 진입을 보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공진입 시기는 무관하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졸업 전에는 꼭! 진입하셔야 합니다.

Q. 원하는 학과에 떨어질 것 같아서 신청하지 못하겠어요.(흑)

아래 표는 2018년 11월 기준 각 학과에 남은 학번별 쿼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영문학과를 제외하면 경쟁률이 높은 편이 아니랍니다! 어느 학과든 진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라면 대부분 선발하기 때문에, 소신 있게 지원하시기 바라요.

구분	2014학번		2015학번		2016학번		2017학번	
	잔여석	광역정원	잔여석	광역정원	잔여석	광역정원	잔여석	광역정원
국문	12	25	6	18	13	19	15	19
중문	비공개요청							
영문	0	24	4	19	0	19	0	19
불문	21	24	23	24	23	24	19	24
독문	비공개요청							
노문	24	24	24	24	22	24	24	24
서문	17	24	18	24	20	24	16	24
언어	19	24	21	24	19	24	13	24
아언문	20	24	18	23	21	25	22	25

국사	14	24	11	21	11	22	11	22
동양사	22	24	22	24	21	24	24	24
서양사	18	23	22	24	20	24	23	24
고미사	23	24	21	24	22	24	23	24
철학	15	24	19	23	13	22	12	22
종교	23	24	23	24	22	24	24	24
미학	15	24	21	24	17	24	20	25
미진입생	5		17		13		27	

Q. 전공진입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교과구분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교는 여러분이 00학과에 지원할거라는 사실을 몰랐으니, 진입 이전에 들은 전필/전선 과목을 일선(일반선택 - 주전공 외의 전공 교과구분)으로 등록했겠죠? 그렇다면 전공학점이 인정되지 않거나,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깁니다. 변경신청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학과도 있으니, 꼭 잊지 말고 하세요! 또한 배정 일자가 다 끝난 최종 선발 이후(전기는 2월 이후, 후기는 7월 이후) 전산등록이 진행되는데요, 마이스누에 있는 진입생의 학과 정보/ 지도교수 등이 변경되고, 각 학과에서는 진입생이 되신 여러분의 연락처를 받아 전공생 특방 / 페이스북 그룹 등 전공 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에 초대합니다. 만일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를 가능한 빨리 복지국 또는 진입 학과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Q. 진입을 했는데, 잘 맞지 않거나 사정이 있어 전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진입생은 전과가 가능하며, 예약생은 불가능합니다. 전과 가능 인원과 관련된 규정이 2018년 9월 개정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개정 이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학과별 전출가능인원은 각 학과의 최근 3개년 진입생 평균의 20%로 산출하며, 따라서 전과가 가능한 인원은 학과마다 다릅니다. 신청방법은 정해진 기간에 마이스누에서 전출 신청을 하신 후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Q. (매년 가장 문의가 많았던 학과) 영어영문학과와 선발 방식이 궁금합니다.

영어영문학과와 다른 학과와는 별도로 신청서 양식이 있으며(학과 사이트에서 다운 가능) TEPS/신입생TEPS 또는 IBT토플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해진 일자에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학과에 문의한 결과, 필요한 서류 및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대부분 합격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전기/후기 선발인원 쿼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보통 전기 1차에 지원인원이 많으므로 가능한 빠른 지원을 추천합니다. 경쟁률의 경우, 지난 통계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지원 특성(한 번에 지원, 천천히 나눠 지원)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2019학년도 학과배정의 경우 전기 2차 시행까지 약 6명 정도가 진입했습니다.

Q. 전공진입설명회는 언제 열리나요?

진입설명회는 학과별로 일정이 다르지만 대부분 4월 주중 오후에 열립니다. 학과 사이트에 공지를 올리는 학과도 있고, 포스터만 붙이는 학과도 있으니 꼭 원하는 학과 진입설명회가 언제 열리는지는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까지는 여러 학과의 전공설명회가 겹쳐 여러 학과 설명회를 듣고 싶은 광역생이 학과 하나를 골라야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는 이를 개선해 설명회를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학과별 전공진입요건

구분	전공진입 규정
인문대학 공통규정	1. 전기전형(매년 2학기말 실시): 2개 학기 이수, 24학점이상 취득 2. 후기전형(매년 1학기말 실시): 3개 학기 이수, 36학점이상 취득 <제출서류> -학과배정 신청서 -성적증명서 -수강신청 내역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기타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서류 <진입시험(일부 학과) 및 구술면접 결과를 반영>
국어국문학과	1. 국어국문학과에서 개설한 전공탐색 과목 (한국어연구입문, 한국문학연구입문, 한국문학과 한국사회) 중 1과목 이상 수강 2. 수강한 전공탐색 과목의 평점 평균이 B-(2.7) 이상이어야 함. (3과목 이상 수강하였을 경우 본인이 2과목을 지정하여 평점평균을 산출) 3. 외국인 학생의 경우 수강한 전공탐색 과목의 평점 평균이 C0(2.0) 이상이어야 함.
중어중문학과	1. 중어중문학과에서 개설한 전공탐색 과목 중 1과목 이상 수강 2. 수강한 전공탐색 과목의 평점 평균이 B-(2.7) 이상이어야 함. (3과목 이상 수강하였을 경우 본인이 2과목을 지정하여 평점평균을 산출) 3. '초급중국어2'나 '초급한문2'중 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더 높은 단계의 과목을 들었더라도 인정함. ex_중급중국어1, 중급한문)
영어영문학과	1. 영어영문학과에서 개설한 전공탐색 과목 (영어학입문, 영문학서설, 영미명작의 세계) 중 2과목 이상을 수강 2. 수강한 전공탐색 과목의 평점 평균이 2.7(B-) 이상이어야 함. (전탐과목을 수강 중인 상태에서도 지원가능하나, 평점 조건을 만족해야 최종 선발됨) 3. 유효기간 이내의 정기 TEPS성적표 또는 신입생 TEPS 성적표, IBT토플 성적표 제출 (토플의 경우 701점 이상) 4. 영어요약과 번역 필기시험 통과
불어불문학과	1. 불어불문학과에서 개설한 교양 또는 전공과목 중 1과목 이상 수강 2. 불어불문학과에 진입하였거나 진입 신청 예정인 학생들은 매 해 2월에 개최되는 '겨울 프랑스어캠프' 참가를 권장
독어독문학과	1. 독어독문학과에서 개설한 교양 또는 전공과목 중 1과목 이상 수강
노어노문학과	1. 노어노문학과에서 개설한 교양 또는 전공과목 중 1과목 이상 수강 2. 정원 외(재외국민/외국인) 학생의 경우, 다음을 적용 - 수시입학 정원의 20% 만큼 선발 - 러시아어 관련 수강 성적을 제외한 전공(탐색) 교과목의 수 및 학점 (B0이상), 영어 혹은 국어 관련 학점을 고려하여 선발
서어서문학과	1. 서어서문학과에서 개설한 교양 또는 전공과목 중 1과목 이상 수강

언어학과	1. 언어학과에서 개설한 전공(탐색) 또는 교양과목 중 1과목 이상 수강, 또는 타학과 개설 언어학 관련과목 중 1과목 이상 수강 -지정과목: 한국어 연구입문 / 중국의 언어와 문자 / 영어학입문 / 세계속의 프랑스어 / 독일어의 구조 / 세계속의 러시아어 / 스페인어의 세계	
아시아언어 문명학부	1. 전공탐색기간 중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 1편 제출 (주제 무관, 담당교수 확인 필요)	
국사학과	1. 국사학과에서 개설한 전공(탐색) 중 1과목 이상 수강 2. 전공탐색기간 중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 1편 제출 (역사계열 보고서 우선)	
동양사학과	1. 한문과목(<한문1>, <한문2>, <한국기초한문>, <한문선독>, <역사와 철학 한문원전읽기>)의 수강여부 또는 평점 반영 2. 전공탐색기간 중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 1편을 제출 (동양사 관련 보고서가 우선이나, 역사계열 보고서도 가능)	
서양사학과	1. 서양어(영어포함) 과목 수강여부 및 평점을 반영 2. 전공탐색기간 중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 1편을 제출 (서양사 관련 보고서가 우선이나, 역사계열 보고서도 가능)	
철학과	1. 철학과에서 개설한 과목 중 1과목 이상 수강 권장, 해당 강의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있다면 1편 제출	
종교학과	1. 종교학 관련 강의 1과목 이상 수강 2. 전공탐색기간 중 작성한 보고서 1편 제출 (주제 무관하나 종교학 관련 내용 권장, 수업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아니어도 가능)	
미학과	1. 전공탐색기간 중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 1편을 제출 (주제 무관하나 미학과 관련 내용 권장, 담당교수의 제출확인 서명 필요)	
고고미술사 학과	고 고 학	1. 고고미술사학과에서 개설한 고고학 교양 또는 전공과목 중 1과목 이상 수강 2. 전공탐색기간 중 작성한 보고서 1편 제출 (담당교수의 확인 필요)
	미 술 사 학	1. 고고미술사학과에서 개설한 미술사학 교양 또는 전공과목 중 1과목 이상 수강 2. 전공탐색기간 중 작성한 보고서 1편 제출 (담당교수의 확인 필요)



## 학과별 소개

1. 학과별 소개에는 학과특성, 학과행사, 학과시설 위치 등 각 학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2. 소개가 없는 학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신 각반 대표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동  
: 시작을 알리는 소리

## 중어중문학과 / 심장반

### 1. 심장반 소개

심장반은 중어중문학과 전공예약생들과 인문광역생들이 생활하는 반이에요! ‘심장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우선 심장이 신체 기관 중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온몸으로 뻗어 나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심장반 구성원들이 사회 곳곳으로 진출하지만 다시 심장반으로 모인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심장반 학생들이 다같이 사용하는 공간인 반방은 인문대학 1동 211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반방에 비해 넉넉하고 넓은 공간이 장점이랍니다. 반방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배달음식을 시켜 먹기도 해요! 시험기간에는 반방에 있는 책상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반방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순서대로 당번을 정해 수요일마다 정리하고 청소하는 수요청소도 진행합니다. 심장반 친구들은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반 내 다양한 활동과 행사 등을 통해 대학 생활 동안 끈끈한 우정과 결속력을 자랑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후배간에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낸다는 점에서도 친근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 2. 중어중문학과 소개

중어중문학과에서는 높은 수준의 중국어와 한문 실력을 갖추으로써 언어와 문학을 폭넓게 연구하고 한자문화권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1) 전공 커리큘럼

교과 과정에서 중국어와 한문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공과정은 중국문학과 중국어학으로 나뉩니다. 문학분야는 다시 시, 소설, 희곡, 사극 등의 분야로 세분되며, 어학분야는 문법, 음운론, 문자학, 방언학 등으로 세분됩니다.

#### 2) 전공 진입 조건

인문광역생 친구들이 중어중문학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해요. 첫째로, <초급중국어2> 또는 <초급한문2>중 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것보다 높은 수준의 과목을 듣는 것도 물론 허용됩니다. 두 번째로 중어중문학과에서 개설한 전공탐색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중문과에서는 <중국의 대중문학>, <한자의 세계>, <중국고전문학탐색>, <중국 현대명작의 세계> 총 4과목을 전공탐색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번째와 두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과목의 평점평균이 2.7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세 과목 이상을 들었을 시에는 본인이 두 과목을 지정하여 평균을 냅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중어중문학과 공부가 딱딱하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럴지만은 않답니다! 다양한 수업을 통해 중국의 언어, 문학, 역사, 사회 등을 폭넓게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갈 중국인들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어요! 중어중문학과 신/진입생 여러분 모두모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 불어불문학과 / 이반

### 1. 불어불문학과/이반 소개

불어불문학과는 프랑스 문화를 문학과 언어학이라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학과입니다. 인문학적인 교양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의 토양 위에서 프랑스 문화를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어불문학과 전공예약생들과 인문광역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반은 인문대의 자치단위 열여섯 개 과반 중 하나입니다. ‘이반’은 한자 다를 이(異)를 사용하여,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프랑스의 퐁레랑스(관용) 정신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진입한 전공에 상관없이 이반 소속 학우라면 누구나 사용가능한 과방은 5동 115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2. 학과 전공 커리큘럼

전공과정에서는 1, 2학년의 경우 프랑스어 문법과 말하기, 쓰기와 같은 기본적인 토대를 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3, 4학년의 경우에는 프랑스 문학과 프랑스 어학에 대한 개론적인 학습에서부터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문학 강의 커리큘럼의 가장 큰 특징은 시대별, 장르별로 강의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학 작품에는 프랑스인들의 감성, 가치관, 그리고 사회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문학은 그 시대의 역사, 문화와 맥을 함께 하게 되니, 텍스트 바깥에서 조금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	어학	문화	불어 학습
1학년	프랑스문학과 예술의 흐름	세계 속의 프랑스어		
2학년	프랑스어권문학강독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연극			프랑스어문법과 작문 시청각프랑스어연습 프랑스어문법과 텍스트
3학년	18세기 프랑스문학 19세기 프랑스소설 19세기 프랑스시 20세기 프랑스소설	프랑스어학개론 1 프랑스어학개론 2		
4학년	20세기 프랑스시 중세·르네상스 프랑스문학 프랑스 비평 프랑스문학특강(논문 지도)	현대프랑스언어학 프랑스언어학특강	현대프랑스문화분석 프랑스문화와 예술 현대프랑스문화현상과 이론	고급프랑스어회화

### 3. 불문과 진입 정보

- (인문대학 공통)

전기 전형: 입학한 후 2학기 이수(24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은 학과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후기 전형: 입학한 후 3학기 이수(3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은 반드시 학과배정 신청하여야 한다.

- 진입 조건: 불어불문학과에서 개설하는 교양 혹은 전공교과목을 최소 1개 이상 수강해야 함. (불어불문학과에 진입하였거나 진입 신청 예정인 학생들은 다음해 2월에 개최되는 '겨울 프랑스어캠프' 참가를 권장함.)

### 4. 교과 외 활동

전공 수업을 듣는 것 외에도, 불어불문학과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어 실력 향상을 위해 겨울 프랑스어캠프나 프랑스 현지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학과 여행이나 초청 강연에도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문대 원어연극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불어 연극동아리 '떼아트르 빵따스띠꼬'의 공연 역시 불어불문학과 의 큰 행사입니다. 불어불문학과 전공예약생이 아닌 이반 소속 인문광역생들도 스태프로 연극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어불문학과 진입에 관심이 있는 인문광역생들도 여름 방학동안 불어 연극에 참여한다면, 학과 친구들을 사귀고 진입 희망 전공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노어노문학과 / 이슬반

### 1. 노어노문학과 전공 교과 소개

노어노문학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전필’ 과목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필수과목은 3개 - 러시아 문학사1, 러시아 문학사2, 러시아어학개론 - 만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우와 이 과 엄청난데?’ 싶죠? 하지만 그 내막은 다르답니다. 이 전필 과목들을 듣기 위해서는 ‘중급 러시아어2’까지 이수해야 해요. 대학에 와서 처음 러시아어를 접하는 친구들은 ‘초급 러시아어1’, ‘초급 러시아어2’, ‘중급 러시아어1’, ‘중급 러시아어2’를 모두 들어야 하는 거죠!

#### 1) 중급 러시아어 1, 2

중급러시아어는 총 두 과목이 존재하며 그 두 과목을 모두 들어야지만 전공 필수인 러시아 문학사를 수강할 수 있다.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배우고 왔거나, 혹은 러시아어권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 온 경우 초급러시아어를 수강할 수 없으며, 중급러시아어를 바로 들어야만 한다. 위의 조건이 아니라면, 초급러시아어1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만일 러시아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수능에서 제2외국어로 러시아어를 선택했다면, 초급러시아어2부터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1, 2 과목을 들을 때, 초급러시아어2에서 중급러시아어1을 듣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나, 중급2에서 중급1을 듣거나 초급2에서 초급1을 듣는 것과 같은 역수강은 금지된다.

#### (1) 박소연 교수님의 중급러시아어 수업

중급러시아어를 1학기부터 재수강하지 않고 1년 만에 끝낸다면,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박소연 교수님의 밑에서 러시아어를 배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첫 시간부터 수업을 나가고, 로드가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배우는 내용도 필자가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박소연 교수님의 그 엄청난 지식 앞에 필자는 한없이 작아졌다.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원 소린지 정리가 안될 때도 있었지만, 박소연 교수님의 교수법에 적응하고 나면, 러시아어가 새롭게 보이게 되고, 자신이 한 층 더 성장했다는 느낌이 자주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수님이 정말 강의를 잘하신다. 정말 잘하신다. 이걸 보장할 수 있다.

#### (2) 중급러시아어 공부법!(박소연 교수님 한정)

중급러시아어에서 학점을 잘 받고 싶다면, 그냥 시험 범위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을 외우는 것이 답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다른 과목들의 학점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바로 시험 범위에서 러시아어로 작문하는 부분을 교수님이 집어주실 것인데, 그 부분만을 정말 달달달 외우는 것이다. 작문의 배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험에서는 작문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 단어가 한-러, 러-한으로 15개 정도 나오며, 그 다음에 문법, 그리고 가끔은 해석, 마지막에 작문이 등장한다. 작

문에 대한 해결법은 먼저 알려줬으니, 문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다.1) 문법은 중급러시아어 교재를 보면, 연습문제가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나온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친절하게 예시도 존재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하여 빈칸을 채워 넣어야 한다. 또한, 수업 시간 중에 배운 격변화, 동사변화, 비교급 변화형, 동사과거 변화형, 형동사, 부동사 변화형 등등, 수많은 곡용 변화에 대해 표를 주고 써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변화형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계속 되새기면서 외우고, 연습문제의 경우에는 화이트로 정답을 지워 버리고 그 한 문장을 정답을 기억해내서 계속 말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석 또한, 각주에서 단어에 대해서 달았던 것과 같이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해석은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어려운 문장은 꼭 해석을 꼼꼼히 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 2) 러시아 문학사

러시아 문학사 1, 2는 노어노문학과 학부생이라면 졸업 이전에 무조건 들어야 하는 전공 필수 과목이며, 이외의 전필 과목으로 러시아어학개론이 있다. 위의 세 전필 과목은 노문과 학생들이 넘어야 할 매우 큰 산과 같은 존재이다. 러시아 문학사 1, 2는 앞서 중급러시아어와 같이 1에서 2로만 순차적으로 들을 수 있고 역수강은 할 수 없다. 또한 전필 과목들은 중급러시아어 1, 2를 필수적으로 선수강하고, 러시아어로 읽는 문화와 예술이라는 과목을 선수강 혹은 동시수강해야만 들을 수 있다. 후배 여러분의 앞으로의 편의를 위해서 13학번 이래린 선배가 적어주신 노하우를 적어보도록 하겠다. 또한, 문학사를 듣기 전에 이후 적을 문학작품들 중 몇 개는 읽어가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1) 문학사 1

배우는 작가들: 고대문학부터 레르몬토프, 카람진, 주코프스키, 투르게네프, 고골, 푸쉬킨,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체홉), (체홉은 진도에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안들어가기도 하는 듯)

이 중에서 꽤 “길면서” 꼭 배우는 작품들이 있다.

작품들:

푸쉬킨 작품들 많이많이...

고골 『죽은 혼』

레르몬토프 『우리 시대의 영웅』

투르게네프 『아버지와 아들』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 혹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

곤차로프 『오블로모프』

등등

---

1) 단어에 대해서는 저술하지 않겠다. 어차피 단어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시험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관용어구가 단어 문제로 가끔 나온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관용어구도 다 외우는 것을 추천한다.

## (2) 문학사 2

배우는 작가들: 체호프 ~ (어디까지지는 기억이 잘 안남..)

솔제니친, 파스테르나크, 자마틴, 불가코프, 아흐마토프, 블록, 마야코프스키 등등

작품들:

솔제니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파스테르나크 『닥터 지바고』

자마틴 『우리들』

불가코프 『거장과 마르가리타』

이 목록 중 방학 때 딱 두 권만 읽으면 다음 학기에 2학점 정도의 로드가 줄어드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3) 팁 - 절판된 책 찾는 법

발제를 할 때, 혹은 책 자체가 절판이 되었는데 다음 주까지 읽어와야 할 때, 전국의 어떤 도서관에 그 책이 있는지 찾을 수 있다.

국립 중앙 도서관 [www.nl.go.kr](http://www.nl.go.kr) 에 접속하여 검색 체크를 “국가자료종합목록”으로 한 후 검색한다. 작가 이름을 치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다. 책이 검색되면 “소장도서관”을 누르면 어디 도서관에 있는지 모두 알 수 있다.<sup>2)</sup>

중급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학사는 논문과 학생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핵심적인 과목들이다. 중급러시아어는 앞서 필자가 서술한 것과 같이, 그냥 교과서를 싹 다 외워버리면 100정도 맞을 수 있다. (물론 역대 만점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만큼 할애해야 하는 시간이 많다. 그러므로 중급러시아어는 시간이 있을 때 틈틈이 하는 것이 이후 시험을 보기 이전에 훨씬 편할 것이다. 격변화, 동사변화를 한 번에 몰아쳐서 다 외우려 하면 곡용의 홍수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문학사는 필자 역시 아직 수강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선배들이 정말 힘들다고 말하는 헬강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필과목이라는 것이 논문과 친구들의 현실이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편한 대학에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 2. 교과 외 활동

### 1) 연극 학회 “에르떼수스”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이슬반에는 “에르떼수스”라는 연극 학회가 존재한다. 이 연극 학회는 1학기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모놀로그를, 그리고 2학기 초에는 여름 방학 동안의 연습 기간을 거쳐 원어연극제를 기획하고 상연한다. 특히, 원어연극제는 인문대학 내에서 어문학과라면 해야 하는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이슬반 이슬노트 기획단, 『이슬-노트』, 2018.02, pp.40-41.

## (1) 원어연극제의 역사와 최근의 에르떼수스

2018년까지 원어연극제는 총 22번이 열렸다. 시간이 흐르며 연극의 트렌드가 고전적인 작품에서 현대적인 작품을 연기하는 것으로 바뀐 학회도 있고, 혹은 고전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학회도 존재한다. 이를 통해서 연극 학회에서는 다양한 작품들을 고루고루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해마다 다양한 종류의 연극들을 볼 수 있어 자신들의 흥미를 더하고 있다. 2016년에는 에르떼수스에서 예브게니 이바노비치 자마틴(Е. И. Замятин)의 우리들(Мы)을 상연했으며, 2017년에는 이리나 리소브스카야(И. Лисовская)의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리(Никогда я не буду любить)를 공연했으며, 마지막으로 2018년에는 발렌틴 크라스노고로프(В. Красногоров)의 조야의 결혼사무소(Зойки на контора)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특히 작년의 기억을 더듬어 조야의 결혼사무소를 상연한 것에 대해 저술하고자 한다. 분명히 원어연극제가 인문대학 내의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것은 사실이나, 연출, 기획, 배우, 그리고 그 외의 스태프들은 자신들의 여름 방학을 완전히 할애하면서까지 연습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이고 정신적인 부담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원어연극제가 다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를 성취감이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 (2) 연극 준비 과정

### ① 대본 번역 작업

대본의 번역 작업을 6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배우들의 연습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1달간 하게 되고, 그 번역을 바탕으로 배우들이 작품을 분석하고, 자막 스태프가 번역을 넣고, 무대를 어떻게 만들지 기획하게 된다. 즉, 번역 작업은 앞으로의 연극의 구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번역하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사전적인 의미와 완전히 다른 관용어구들과 슬랭들이 가끔 등장하는데, 그런 의미는 국내에서만 러시아어를 배운 학생들이 파악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므로 원어민 선생님의 도움을, 혹은 우리의 정말 소중한 조력자인 블라다(문지우)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 ② 번역 작업 이외의 원어연극제 준비

번역 작업이 마무리되고, 앞서 말했듯이 배우들이 연극 연습을 시작하고 연출이 무대 구상에 완전히 몰입하게 된다. 또한, 8월 중순부터는 스누 인 모스크바 프로그램을 마치고 온 학생들, 혹은 다른 스태프들도 연습에 참여하게 되어 본격적인 연극 상연에 불을 지피게 된다. 그리고 8월 중순부터 관객들을 위한 자막이 완성되고, 배우들의 분장, 소품을 결정짓고 준비하며, 음향, 조명을 무대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진지한 대화가 오간다.

그렇게 준비 기간을 거쳐서 2일간 하루에 2번씩, 즉, 4번의 연극을 상연한다. 4시와 7시에 각각 공연을 올리며, 첫 공연과 마지막 공연에 많은 관객이 찾아와서 공연을 즐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어연극제는 크나큰 짐이기도 하지만, 한 번은 해봐도 될 좋은 경험이다. 작년에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기억도 크게 남아있지만, 그보다 훨씬 크게 내가 연극을 번역 작업에서부터 자막 작업까지 해냈다는 성취감이 남아있고, 연극에 참여했던 것이 2018년 나

의 인생에서 매우 큰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지금도 느끼고 있다.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이슬반 연극 학회 에르떼투스(Русский Театр; С Ума Сошёл)는 러시아어 풀이를 보다시피, “러시아 연극에 미쳐버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19학번 친구들도 한 번 러시아 연극에 미쳐보는 것은 어떨까?

## 2) 동계 러시아어 캠프

노문과의 또 다른 졸업요건 중에는 “동계 러시아어 캠프”가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마다 열리는 이 캠프는 노문과에서 주최하는 행사예요. 노문과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 이 캠프에 최소 두 번 참여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이 캠프의 일정이 겨울 계절학기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러시아어 캠프와 계절학기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참사가 일어났지만, 올해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둘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다행인 듯하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같이 수업을 듣는다는 건 정말 행복하네요^^! 남의 일 같겠지만 여러분에게도 곧 다가올 현실이니 그냥 받아들이세요^^

## 3) 현지 연수

노문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학교 프로그램에는 “SNU in Moscow & St. Petersburg”가 있습니다. 여름방학 중 3주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학교 국제협력본부(OIA)와 노어노문학과가 함께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합격한 후에 러시아로 ‘여행’을 간다는 생각으로 참여하신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여행보다는 ‘연수’의 느낌이 훨씬 강하거든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정해진 수업들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러시아 버디들, 그리고 함께 간 동기, 선배끼리 놀러다닐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답니다! 스누인에는 모스크바 외에도 런던, 베를린, 실리콘벨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잘 찾아보시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고동**  
: 시작을 알리는 소리

## 서어서문학과 / 어올반

### 1. 학과 진입 정보

#### 1) 전공진입 요건

##### (1) 배정 대상: 광역(인문계열)

-전기 전형 (1,2차): 입학한 후 2학기 이수(24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은 학과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후기 전형 (1,2차): 입학한 후 3학기 이수(3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은 반드시 학과배정 신청하여야 한다.

(2) 서어서문학과에서 개설하는 교양 또는 전공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을 수강

#### 2) 전공진입 방법

-접수시기 내 제출서류 (학과배정 신청서, 신청 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신청 학기의 수강 신청내역-마이스누 캡처본 출력물,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학과사무실 제출

\* 서어서문학과는 별도의 추가 제출서류 없음

-학과 면접 실시

더 자세한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 <http://spanish.snu.ac.kr/new/> 참고!

### 2. 진입수기

#### 1) 진입수기 1 (심장반 18)

자기소개서 준비: 서어서문학과를 주전공으로 택한 계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스페인어를 공부해야 할지(스페인어 캠프, 스누 인 마드리드 등),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스페인어를 탄탄히 공부해나갈지(델레 등)에 대한 수학계획서 작성.

면접 준비: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교수님께서 하실 것 같은 질문들에 대한 간단한 답변들을 생각해 감. (서문과 졸업 후 구체적인 목표, 하고 싶은 일, 자기소개서 내용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

면접 질문 항목: 구체적인 장래희망(통역 얘기했는데 보류 당함), 서문과에 들어온 계기, 왜 자꾸 수업시간에 조냐고 여쭙보심 (당황. 1교시가 있고 집이너무멀어서 그렇다고 대답함), 서문과는 주로 외교 출신이어서 스페인어를 이미 하고온 애들인데 어떻게 따라잡을 것이냐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한 듯)

#### 2) 진입수기 2 (심장반 18)

저는 정시 광역생으로 입학했는데, 정시로 서울대학교 지원할 때부터 서어서문학과 진입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국립외교원 입교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기르면서 문학도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학 첫학기인 18년 1학기에는 초스와 스페인어권명작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을 들었고, 2학기에는 초스2와 스사문, 스문이를 수강했어요. 그리고 방학동안에 스페인어 캠프에 참여했어요.

진입 준비는 따로 뭘 많이 했다가보다는 들은 수업들과 스페인어 캠프에서 배운 내용들을 녹여내서 자소서 썼고,

면접은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어요. 왜 진입하고 싶은지, 졸업후 뭘 하고 싶은지 간단히 물어보시고 나머지시간은 좋은 얘기 해주시고 끝났어요.

### 3) 진입수기 3

1-1학기 스페인어권 명작의 이해 수강(선택교양)

1-2학기 서문과 진입 결정하고 초스1, 스페인 문화와 사회 수강(전공탐색)

면접 질문 1 : 서문과에 들어온 계기

답변 : 1학기 스명어에서 정열의 나라로만 알았던 스페인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접하게 되면서 흥미가 생겼고, 스페인어 자체의 예레 발음도 독특하여 배우면서 즐거웠습니다

면접 질문 2: 초스는 누구한테 배우나요?

답변 : 정수현 교수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질문 3:하고싶은 게 뭐예요?

답변 : 정확하게는 없지만, 스페인어권 사용 국가가 다양하다보니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배울 생각입니다

스페인어와 스페인어권에 대한 기본 지식 자체를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지는 않으며, 그동안의 흥미나 열정을 보시는 듯 하다.

### 3. 학과 시설 소개

\* 과방 위치: 3동 209호 (어울반 반방과 동일)

\* 과사무실 위치: 3동 429호

\* 과자료실 위치: 3동 428호



**고동**  
: 시작을 알리는 소리

## 언어학과 / 너울반

### 1. 너울반 소개

안녕하세요? 너울반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의 과반(科班)으로, 언어학과생들과 인문계열 여러 전공의 학우들이 함께 더불어 지내는 공동체입니다! 너울이라는 말은 '바다에 치는 큰 파도'를 일컫는 우리 토박이말입니다. 너울반 사람들은 오랫동안 화목하고 따뜻한 전통을 이어왔기에, 선/후배 간의 교류도 활발하고 동기들 간의 유대감도 돈독합니다! 비록 반 학생회는 개설되지 않았지만 공동체의 일을 구성원들끼리 잘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유연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민주적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하여 '인권 인문대'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울반 사람들의 학구열도 대단하여, 학기 중에는 11시 이전까지 과방의 불이 꺼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전공의 학우들이 모여있기에, 각자의 전공을 주제로 하여 이야기와 토론이 자주 펼쳐진답니다!

너울반의 과방은 인문대학 2동 211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너울반 선배님들이 축적해주신 강의 자료와 교재들도 모여있어서, 도서관 같은 느낌도 드는 곳이죠. 과방은 너울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식사를 함께하고, 나아가 다같이 공부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너울반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언어학을 공부하는 학부생, 대학원생들도 종종 과방에 와서 교류하므로 다양한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도 존재합니다. 또한 과방에는 1987년 민주화를 위해 생명을 바쳤던 언어학과 박종철 열사를 기리기 위한 사진들도 걸려있습니다.

너울반 과방은 화장실과 정수기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용에 편리하고, 해방터와도 매우 가까워 인문대 곳곳과 중앙도서관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2동 2층에 있는 테라스들은 야방궁과 자하연의 풍광을 볼 수 있는 좋은 스팟이기도 하니 자주 들려보세요! 막강언어 힘찬너울, 우리 너울반 학우들 모두 너울처럼 힘차고 당당한 대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 \* 언어학과/너울반 시설 소개 - 과자료실

언어학과반인 너울반은 과도서관이나 과자료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 하지만 언어학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거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와 너울반이 지금껏 쌓아온 여러 기록들을 조회하고 싶다면 과사무실을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과사무실 한켠에 위치한 서고에 수많은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으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꼭 찾아주세요! 언어학과 과사무실은 인문대학 2동 108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 아시아언어문명학부 / 여명반

### 1. 학과 소개

아시아언어문명학부는 2013년에 첫 입학생을 받은 인문대의 16번째 학과입니다. 일본,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인도 언어문명으로 세부전공이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학생들은 3학기 이내에 이 네 지역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시아언어문명학부는 그동안 편중되었던 지역 연구를 극복하고, 학계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학부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어'와 '문명'이라는 두 가지 중심을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역별 어문학 중심 체제를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어문학, 역사학, 철학 등의 단위로 나뉘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만나는 융합적인 교육과 연구를 추구합니다. 아시아언어문명학부는 이러한 간학문적인 인문학 교육을 통해 전공생들에게 전공지역에 대해 폭넓은 시야를 갖추게 하고, 새로운 인문학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양의 시각에서 진행되어 왔던 동양 연구, 즉 오리엔탈리즘이라 명명된 연구경향을 극복하고, 한국적인 아시아 연구의 시각을 갖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학부 내에서는 사회과학과 구별되는 인문학적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사회과학과의 융합을 추구하여, 아시아 지역학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대학원이 새롭게 발족해 전공에 대한 심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2. 학과 시설

-과 사무실: 5동 313호

-과 도서실: 7동 213-3호

-과방: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과방은 따로 없고, 여명반 반방은 7동 213-4호입니다. 진입생 분들도 원하실 경우 반방에서 사물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3. 학과 행사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는 거의 매년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답사가 진행됩니다. 답사에서는 전공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각 전공과 관련된 문화원이나 박물관을 방문하기도 하고, 전공과 관련된 연극이나 뮤지컬을 관람하기도 합니다. 지난 해에는 일본 전공 학생들은 인천 개항기 유적을 탐방하고,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전공 학생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관과 이태원 이슬람사원을 탐방했습니다. 답사는 학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이다 보니, 답사를 통해서 전공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교수님들과 소통하며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 4. 전공 강의

전공필수 교과목은 아시아문명론입문(네 개의 전공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입문 강의)과 아시아연구지도(논문지도)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전공탐색 교과목으로 동남아시아 문명의 이해, 서아시아 문명의 이해, 일본 문명의 이해, 인도 문명의 이해 수업이 개설됩니다.

## 국사학과 / 새날반

### 1. 학과 전공 소개

#### 1) 국사학과 졸업 요건

- 총 130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국사학과 전공학점을 39학점 이상 이수.  
심화전공(복수/부전공을 하지 않고, 국사학과만 전공하는 경우)을 이수할 경우 국사학과 전공학점을 60학점 이상 이수
- 전공필수 교과목 9학점 이상  
(한국사논문쓰기 / 한국사를 보는 관점과 자료 / 한국사한문강독)
- 이수 전공교과목에는 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중 2과목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동양사, 서양사, 고고미술사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을 최대 3과목까지 국사학과 전공학점으로 인정.
- 국사학과 학술답사에 3회 이상 참석해야 함.
- 인문대에서 주관하는 ‘소그룹고전원전읽기’를 이수해야함.<sup>3)</sup>
- 교양교과목은 총 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일반교양교과목 중 4영역(004) 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이 중에 국사학과 개설 교과목 3학점, 역사계열학과(동양사, 서양사, 고고미술사) 개설교과목 3학점이 각각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삶과 인문학(1학점) 수강<sup>4)</sup>
- 영어로 진행되는 과목을 3과목 이상 수강해야 함.  
그 중 하나는 국사학과 전공수업교과목이어야 함.
- 그 외 교양교과목 이수규정은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홈페이지를 참조. [별첨1]

#### 2) 전공교과목 소개

국사학과 전공교과목(이하 전공)은 전공필수교과목(졸업하려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과목. 이하 전필)과 전공선택교과목(졸업요건인 전공이수학점에 맞춰 골라 들으면 되는 교과목. 이하 전선)으로 나뉜다. 전필은 한국사논문쓰기, 한국사를 보는 관점과 자료, 한국사한문강독이 있다. 전선은 다시 크게 시대사와 주제사로 나뉜다. 시대사로는 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가 있으며, 한국고대사상사, 한국중세사상사, 한국근세사상사 등의 각 시대 사상사도 강좌가 열린다. 주제사로는 한국정치사회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대외관계사, 한국과학기술사, 한국독립운동사, 한국사학사, 한국사세미나 1·2 등이 있다.

---

3) 소그룹고전원전읽기는 소그룹고전원전읽기1과 소그룹고전원전읽기2로 나뉜다. 이 수업은 단일한 수업이 아니라, 고전을 읽는 각기 다른 여러 수업에 ‘소그룹고전원전읽기’라는 수업명을 붙인 것이기에, 수강신청하기 전에 강의계획서와 수업 교수님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삶과 인문학은 1학년 1학기에 들어두어야 한다! 더불어 삶과 인문학은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니(다른 수업을 넣느라 수강신청 제한학점인 18학점이 딱 차더라도, <삶과 인문학>은 수강신청이 된다.), 시간표 짤 때 걱정 마시길. 다만 <삶과 인문학>이 있는 날에는 우주 공강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각 수업의 난이도, 로드(과제)의 양, 시험횟수, 시험난이도 등은 교수님마다, 그리고 학기마다 다르다.<sup>5)</sup> 그럼에도 전공을 들을 때는 세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어학능력, 배경지식 그리고 수업이 열리는 시공간. 우선 전공을 들을 때 필요한 언어는, 한국어, [한문], 일본어, 영어 등이 있다. 우선 한국어는 당연하겠지만, 대부분의 텍스트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국사학도에게는 유창한 한국어실력이 필요하다. 단지 한국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독해능력과 작문능력이 필요하다. 보통 레포트가 5페이지 내외인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통일된 논리로 5000자 이상의 글을 적는 것은 쉽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영어. 국사학과생이라면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을 이수해야한다. 해당 수업은 강의도 영어, 레포트도 영어, 시험도 영어(...) 또한 한국 현대사를 공부할 때 영어 사료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그 외의 시대를 공부할 때에도 구미권 한국학계 논문을 읽으려면 영어독해능력이 조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어. 일어는 한국근대사와 대외교류사를 공부할 때 주로 필요하다. 그 외에도 한국사 초기연구 자료는 일본어로 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일본어 독해능력이 뒷받침된다면 더 깊이 공부해볼 수 있다. 이외에 러시아어, 중국어 등의 언어도 필요할 수 있다.

사실 어학능력 중에서 가장 고려해야할 사항은 **한문독해능력**이다. 다른 언어는 모두들 학창시절에 접해본 기억이 있을 텐데, 한문은 대개 그러하지 못하다. 심지어 한자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중어중문과, 동양사학과, 국사학과 등에서 한문 관련 강의를 개설하니 이 강좌들을 수강하면 한문독해능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된다. <초급한문1>, <초급한문2>, <중급한문>, <한국사한문강독>, <소그룹고전문원읽기2>, <동양사한문사료강독> 순으로 수강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한자를 잘 모른다면 한자능력검정시험 5급을 응시할 수 있을 정도의 한자실력을 먼저 키우는 것을 추천한다. 대학원을 염두 하거나, 한문에 재미를 느낀다면, 중어중문과의 한문관련 강좌를 듣는 것을 추천한다. 방학 때에 국사학과에서 한문캠프도 진행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참가하는 것도 추천한다. 교외에서도 한문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고등교육재단**<sup>6)</sup>의 **한학연수장학생 프로그램**과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번역교육원**<sup>7)</sup>에서 진행하는 한문 강좌들이 있다.

앞서 말했듯 배경지식은 전공을 듣는데 중요하다. 아무 정보도 없이 전공을 들으면 종종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잘 아는 시대부터 시대사를 듣는 것이 좋다. 그.치.근. 새내기라면 교양부터 들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교양부터 듣는 것이 좋은 이유는 1. 이후 전공을 들을 때 자양분이 되어주는 질 좋은 배경지식이 생기고, 2. 대학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감 잡을 수 있으며, 3. 레포트 작성법과 시험 치는 방법을 먼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같은 이유로 <한국사를 이끈 사상가들> 과 같은 전공탐색교과목(이하 전탐)을 수강하는 것도 추천한다. 따라서 교양 또는 전탐을 먼저 듣고, 관심이 가는 시대사를 듣고, 주제사를 들으면 어렵지 않게 국사학과 전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sup>8)</sup> <한국사를 보는 관점과 자료> 는 전공을 1개 정도 들은 후에,

5) 그럼에도 대략적인 정보를 얻고 싶으면 1. 강의계획서를 확인하고, 2. snulife나 에브리타임 등의 강의평가를 확인해보자. 2의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학점에 따라 강의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함이 좋다. [ ex) 수업이 엄청 어려웠지만 성적이 잘 나온 경우: 이 수업은 <관악의 명강의>이다. ]

6) <https://www.kfas.or.kr/>

7) <http://edu.itkc.or.kr/>

8) 부전공과 복수전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2 학년때에 미리미리 부전공/복수전공을 뭉로 할지 고민해두기를 바란다.

〈한국사한문강독〉은 〈중급한문〉을 수강한 이후에, 〈한국사논문쓰기〉는 2학기에 열리는 것을 감안하여 졸업학기 혹은 그 전 학기에 수강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사논문쓰기〉는 말 그대로 **[논문]**을 쓰는 수업이다. 논문을 쓰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우선은 논문주제를 생각해두는 것이 좋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읽어보면 더욱 좋다. 다른 수업에서 해당 주제로 레포트를 써봤다면 더더욱 좋다. 만약 그 주제로 레포트를 썼다면, 그 레포트를 수정·보완하여 살을 붙이면 빠르고 쉽고 아름답게 논문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은, 아니 모든 글은 마감이 닥쳐야 잘 쓰이는 법. 논문쓰는 학기에 논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강의들과 졸업요건을 이수해두는 것이 좋다. 통상 논문 쓰는 학기에는 12~15학점을 듣는 것을 권장한다.

### 3) 팁 - 수업 테크트리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시간표를 구성해야 하는지, 전공은 어떤 순서대로 들어야 하는지 고민한다. 따라서 선배들의 조언을 모아서 가상의 수업 테크 트리를 제안한다. 그러나 이 수업 테크 트리도 완벽한 것이 아니며, 단지 여러분의 수업 테크트리를 설계하는데, 비교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 1-1. 대학국어1 / 초급한문1(초급외국어) / 대학영어1 / 인물로 본 한국사(국사학과 교양) / 한국사를 이끈 사상가들(국사학과 전담) / 미술론입문(교양) / **삶과 인문학**
- 1-2. 대학국어2 / 초급한문2(초급외국어) / 말하기와 토론(교양) / 한국의 문화유산(국사학과 교양) / 한국근세사상사(국사학과 전공) / 양자개념과 인류문명(교양) / **신입생세미나9)**
- 2-1. 중급한문(중급외국어) / 한국고대사(전공) / 한국사를 보는 관점과 자료(전필) / 고고학개론(교양) / 생활원예(교양) / 테니스초급(교양) / 개관일본사(타과전공)
- 2-2. 소그룹고전문문읽기 / 대학영어2 / 20세기 한국사(전공) / 한국상공업사(전공) / 고고학연구의 기초(타과전공) / 러시아사(타과전공) / 동아시아의 역사분쟁(교양)
- 3-1. 한국사한문강독(전필) / 한국중세사(전공) / 동아시아 문헌과 규장각(전공) / 한국고고학1(타과전공) / 고고학사(타과전공)
- 3-2. 동양사한문사료강독 / 한국사세미나2(전공/영강) / 한국고고학2(타과전공) / 고고학방법론(타과전공) / 동아시아의 왕권(교양)
- 4-1. 한국근세사(전공) / 한국고고학3(타과전공) / 인골고고학(타과전공) / 인류문화와 환경(타과전공) / 인간관계의 심리학(교양)
- 4-2. 한국사논문쓰기 / 한국독립운동사(전공) / 정치학개론(교양) / 소묘의 기초(교양)

---

9) 신입생세미나는 신입생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이다. 소그룹고전문문읽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강좌명 아래에 여러 강좌들이 개설되는 과목이다. 이걸 정말 복불복이니까, 여러분의 운에 맡긴다. 그래도 꼭 들어볼 만하다.

위 시간표는 국사학과 전공, 고고학과 부전공을 전제한 시간표이다. 각자 자신이 설계한 전공에 맞게 이용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부분 학과의 수업은 1년에 한 번씩 개설되며, 어떤 수업은 2~4년에 한 번씩 개설되기도 한다. 휴학, 교환, 입대를 할 계획이라면 이 점을 유의하길 바란다.

※ 전공진입 하기 이전에 수강했던 전공교과목들은 [일선]으로 표기된다. 전공진입한 이후에 마이스누 포털사이트를 통해 ‘꼭’ 일반선택에서 전공선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잊지 말길.

## 2. 교과 외 활동

### 1) 학과 모임

국사학과에서는 다양한 학과 모임을 개최한다. 대표적으로는 ‘국사인의 날’이 있다. ‘국사인의 날’은 국사인의 날은 국사학과 전공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교수님들도 참석하여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는 자리다. 매 학기에 한 번씩 개최되며 국사학과 졸업생을 초청하여 진로 강연을 듣는 경우도 있다. 교수님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조언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다. 더불어 선배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전공 수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부생들은 대학원생 선배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사인의 날’ 이외에도 비정기적인 학과 모임이 몇 번 있다. 모임이 열리기 며칠 전에 카카오톡 국사학과 단체방을 통하여 공지가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석에서 편하게 교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선배 동기들과도 친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음식이 공짜이다.

### 2) 학과 답사

매 봄학기 와 가을학기에 이루어지는 국사학과 정기 답사는 국사학과 행사 중의 꽃이라 할 수 있다. 3~4분의 교수님들과 국사학과 전공생들 40~60명 정도가 2박 3일의 일정으로 국내 또는 국외로 답사를 떠난다. 답사지는 매 학기마다 달라지는데 전남, 전북, 경북, 제주도 등으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에 있는 유적지나 박물관, 발굴지를 돌아본다. 교수님들이 직접 지역에서 발굴을 하실 때도 있어서 현재 발굴 중인 아직 공개되지 않은 발굴지에 가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 보통 정기 답사는 국내 지역을 다니지만, 4년에 한 번씩은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로 나가서 학부생들의 견문을 넓혀준다. 2018년도 1학기에는 중국 동북삼성으로 답사를 가서 집안시, 백두산 등의 지역을 다녀왔다.

답사는 학부생들이 모두 전담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답사책, 부답사책, 회계 등을 뽑아 답사지역을 선정하고 어떤 곳을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하나하나 모두 계획한다. 또한 학술논문, 단행본 등의 자료를 통해 답사지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사전조사를 하고 이를 모아 자료집으로 만든다. 답사를 준비하는 팀은 매 학기 개강 전 방학 때 모여 수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예비답사를 다녀와 완벽한 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답사지에 가서는 자료집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고 교수님들이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를 통해 각 답사지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답사라고 해서 모든 일정이 학습과 관련된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매 식사마다 각 지역의 특별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답사의 또 다른 묘미다. 또한 저녁이후에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학부생이 서로 어울려 게임을 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

을 갖는다. 이렇듯 답사는 국사학과 행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신입생, 복학생 등 다양한 학우들과 친분을 쌓고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다.

본래는 10만원 내외의 답사비가 학부생들에게 청구되었지만, 2019년 1학기부터 소득분위에 따라서 국사학과 답사비가 지원된다.

2박3일 동안 진행되는 정기답사와는 별개로 서울 근교를 탐방하는 일일 답사 또한 매학기

진행된다. 최근에는 인천 차이나타운을 비롯한 조계지 답사, 남한산성 답사, 수원화성 답사, 몽촌토성 답사가 있었다.

### 3) 학과 세미나

국사학과에서는 외부 학자들을 초청하여 <국사학과 콜로키움> 등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흥미로운 강의들이 많으니, 학과 수업 외의 전공 세미나를 듣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학과 세미나 정보는 학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문의해보거나, 14동 여기저기에 붙은 포스터를 참고하면 된다. 국사학과 외의 다른 학과, 혹은 서울대학교 내의 여러 연구소에서 수준 높은 세미나를 많이 개최하니, 이점도 참고해두는 것이 좋다.

### 3. 학과 시설 소개 - 학과 사무실 / 국사학과 홈페이지 / 삼사과 열람실

학과 사무실은 학과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업 혹은 학적 관련 문의를 할 때, 학과 사무실을 이용하면 된다. 학과에서는 또한 국사학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국사학과 홈페이지에는 학과 관련 여러 공지들이 게재된다. 아주 좋은 조건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올라오니, 종종 확인하기를 추천한다.

국사학과 자료실은 7동 302-2에 있으며, 이용시간은 10:00-12:00;13:00-17:00이다.<sup>10)</sup> 삼사과 열람실은 7동 301-1에 있으며, 월~금 09:00-21:00에 이용가능하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사학과 과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주변 선배·동기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사학과 과대표에게 문의하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소소한 근심과 소소한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10) 서양사학과 자료실은 7동 302-1.

## 고고미술사학과 / 공명반

### 1. 학과 소개

고고미술사학과(고미과)는 고고학과와 미술사학과가 합쳐진 하나의 과입니다. 처음 고미과에 들어올 때는 고고학과와 미술사학과를 구별하지 않지만, 차차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고고학과나 미술사학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공 진입을 해야합니다.

고고학과 미술사학은 인류가 남긴 유형적 유산, 즉 눈에 보이는 유산을 일차적인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성격의 학과들입니다.

고고학은 인간이 남겨 놓은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고 분석하여 과거의 문화를 복원하고 문화변동의 과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물질 문화를 통해 인간의 과거를 추론해야하다보니 물질적 잔존물 자체에 대한 직접적 분석을 위한 자연과학적 연구방법론이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물질적 잔존물을 인간의 삶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고학은 통계학, 지질학, 동식물학 등 자연과학과 문화인류학, 역사학 등의 인문과학, 사회과학이 융합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으로는 '한국고고학', '동물고고학', '인골고고학', '고고학 연구의 기초', '고고학사', '고고학의 사회복합화', '박물관학 입문' 등이 있습니다.

미술사학은 과거 미술품들을 연구하여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 인간미술 활동의 양상과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미술사'라고 하니, '미술'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미술사학은 '미술'보다는 '사(史)'에 더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이 미술작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제작이 되었는지, 이 미술작품이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지 등 미술을 통해 과거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지요! (그림 실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미술사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다양한 학문적 사조와 역사적 환경이 미술작품이 어떻게 융합되어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업으로는 '미술사와 시각문화', '르네상스와 바로크 미술', '한국의 미술문화', '중국의 미술', '동양의 도자', '한국의 회화' 등이 있습니다.

### 2. 학과 행사

강의실에서 수업을 통해 배우는 것 외에도 고미과에서는 답사, 발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고미과 답사는 일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갑니다. 또한 3년에 한 번씩 해외답사를 갑니다. 고미과 답사는 학부생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준비합니다! 답사지의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미술관을 고미과 학부생과 대학원생, 조교님들, 지도교수님과 함께 답사를 하는 것이지요. 또한 방학 중에 교수님들의 지도 하에 발굴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발굴은 주로 고고학과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도 고미과에서는 다양한 수업과 학술적 행사가 열립니다.

### 3. 과방 안내

고고미술사학과 과방은 공명반방과 합쳐진 형태입니다. 공명반 학생회에서 매 학기 고고미술사학과 단톡방을 통해 신입생 분들의 사물함 신청을 받습니다. 사물함을 비롯한 과/반방 이용은 공명반 학생회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 종교학과 / 상상반

### 1. 종교학과 소개

종교학과의 교육목적은 종교의 참다운 모습을 규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역사와 문화 및 사회 속에 있는 여러 종교의 신앙과 형태, 조직과 기능, 신화·제의·상징 및 종교적 세계관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그리하여 종교학은 다양한 종교현상들이 지닌 복합성과 보편성을 고찰함으로써 다른 종교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신의 종교문화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종교학은 특정종교의 신앙을 변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규범적인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인간의 본질 속에 내재하는 종교성과 그것이 표현되는 사실들을 서술하고 분석하며 해석하는 인간학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종교학은 종교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종교는 개인과 집단에게 가장 설득력 있고 역동적인 힘을 가진 생활양식이기 때문에 종교학은 인간의 이해와 자기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 것이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변천하면서 자기 모습을 바꿨고, 사회 정치의 구조적 변화, 민족의 특수성, 지리적 요건, 문화적 전통, 사회계층, 심지어는 개성에 따라 그 양태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학은 이런 사항들을 그 구체적인 연구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지적 관심을 가진 사람은 물론 역사와 문화, 사회와 인간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종교학은 자기 신앙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장 적절한 학문일 것이다.

### 2. 종교학과 교과과정

학부과정에서는 세계종교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혹은 종교별로 심도 있게 탐구할 뿐만 아니라, 종교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종교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질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종교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전통' 과목, 다른 하나는 '이론' 과목이다. 전통과목에서는 개별종교나 지역종교의 역사와 철학, 교리 등을 배우며(불교, 기독교, 중국종교, 인도종교 등), 이론과목에서는 개별 종교를 진단하고 탐구할 사상적 도구를 습득한다(종교사회학, 종교철학, 종교현상학 등).

### 3. 종교학과의 특징점

종교학과에서는 매년 집담회(Colloquim),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강연회(Distinguished Lecture), 국제학술회의(International Academic Symposium)등의 다양한 학술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공과정생에게 이들 행사에 참여하고 강연을 들을 기회가 폭넓게 열려 있다. 이러한 학술행사에서는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었던 내용을 토론하고 공유할 수 있다.

종교학과에는 매년 전공과정생이 십여 명 안팎으로 진입하게 된다. 종교학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열정적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배움에 대한 자극을 받고 서로 지적으로 성숙해지려고 노력한다. 한편, 상대

적으로 교수 한 명당 지도하는 학생의 숫자는 적은 편이다. 그래서 교수님들과 학생 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굉장히 작다. 대학에서는 교수-학생 간 교류가 일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나 종교학과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가지는 관심과 애정이 각별하다. 배움에 대한 열의가 있는 학생이라면 언제든지 교수님과 상담할 수 있고 장학금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생과 교수가 많은 대형 학과에서는 느낄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종교학과에 있다. 또한 학기 당 한 번씩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전체 학술답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외 주요 종교 유적을 탐방하고 개별 종교행사들을 참관하게 된다. 답사를 통해 직접 종교의 실재를 체험하고 종교현상을 눈으로 인식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학과 구성원 간의 유대를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4. 교수진

종교학과 교수진은 각 이론과 전통을 세부적으로 전공하고 그 책임을 맡고 있다. 종교학과에는 현재 7명의 교수가 재직 중이다. 불교의 윤원철 교수, 종교의례의 최종성 교수, 비교종교학 이론의 유요한 교수, 동아시아 불교의 샘 베르메르쉬 교수, 유교의 이연승 교수, 도교와 중국철학사의 김지현 교수, 종교심리학과 신비주의의 성해영 교수가 있다. 교수진이 담당하고 있지 않은 이론과 전통들은 역량 있는 강사들이 지도하고 교육하고 있다.

#### 5. 종교학과 이후 진로

졸업 후의 진로는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월등하게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종교학계나 종교계로의 진출이 단연 두드러진다. 언론계나 문화계로의 진출도 물론 활발하다. 졸업 후 사회의 다원화와 더불어 여러 분야의 전문 인력이 요구되면서 문화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소양을 갖춘 인재들에 대한 요청이 시급하며, 그러한 요청에 부응할 종교학 연구자의 역량도 다양한 창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6. 관련 시설 및 기타사항

종교학과/상상반 과방은 7동 112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5동 3층에 종교학과 도서관이 있으니 종교학과 학생들은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종교학과 학부생들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종교학과 단체 카카오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종교/상상반 학생회장 노현수(010-5657-018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미학과 / 모반

### 1. 미학과 교과과정 소개

미학과는 총 전공이수학점 3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전공필수 9학점과 전공선택 30학점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공필수 과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공필수학점	1학기	2학기
3학점	미학원론	미학사
6학점	현대영미미학 예술철학	동양예술론

즉, 미학원론/미학사 중에 1과목을 듣고 현대영미미학/예술철학/동양예술론 중에 2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미학원론, 미학사, 현대영미미학을 수강하면 전공필수 학점은 9학점이지만 졸업이수요건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동양예술론을 듣는다면 졸업요건을 만족시키게 되고, 9학점을 초과한 전필 학점은 초과한 만큼 전공선택 학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필 9학점, 전선 3학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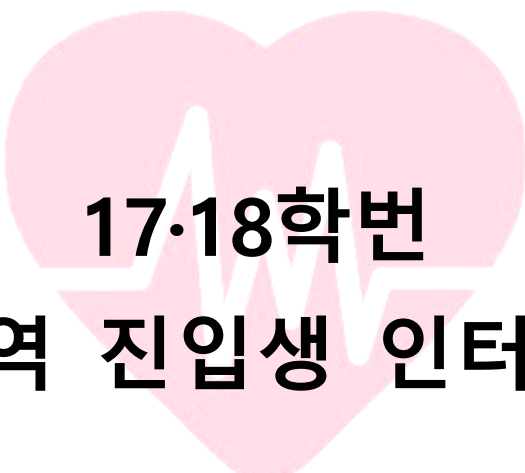
전공선택 과목은 30학점을 들어야 하는데, 미학과는 이 중에 최대 15학점을 타과전공 인정 과목으로 채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철학과의 모든 전공 과목이 여기 포함되고 인문대 내 타전공이나 사회대, 음대, 미대 등의 전공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타과전공 인정 교과목 리스트는 미학과 홈페이지 학부>졸업이수요건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전선 15학점은 반드시 미학과 개설 과목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즉, 5과목 이상 미학과 전공을 듣고 나머지는 타과전공 인정과목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2. 미학과 전공진입 요건

- ① 미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이나 교양 중 1개 이상 수강해야 한다. (전탐 과목 아니어도 됨)
- ② 수강 기간 중 해당 과목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전공탐색 과목

1학기	2학기
미학원론 (1학년) 예술 철학 (2학년)	미학사(1학년) 동양예술론 (2학년)



# 17·18학번 광역 신입생 인터뷰

1. 신입생 인터뷰는 광역생 여러분께 선배들이 어떤 방식으로 반/학과 생활에 적응했는지, 정보는 어떻게 얻었는지 등의 정보를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대부분 서면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본 인터뷰는 학교생활 등 개인적 경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소속 반과 학번, 전공을 이용해 인물을 유추하거나 향후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터뷰를 통해 기꺼이 진입 경험을 공유해주신 모든 학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뷰1) 철학과 진입 공명반 17학번 학우

**1. 입학 이전부터 현재의 전공을 선택할 계획이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무엇을 계기로 전공을 결정하게 되셨나요?**

저는 입학하기 전부터 철학과를 진학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로 진입할 수 있는 인문대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철학에 흥미가 있었고 평소에 스스로를 고민이나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해서 대학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학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철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입 전에 윤리학, 한국철학사와 같은 전필 과목과 인도불교철학, 서양근대철학과 같은 전선 과목을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던 김현섭 교수님의 윤리학은 매주 리딩이 있고 리딩이 영어일 때도 많아서 첫 전공으로 듣기에는 살짝 버거웠습니다. 철학을 처음 접하는 강의로는 그렇게 추천드릴만 한 강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리딩이 많고 수업 내용이 좋은 만큼 배울 점이 많았던 수업이었습니다. 허남진 교수님의 한국철학사는 매우 널널한 수업이었습니다. 보고서 하나에 기말고사 한 번으로 기억하는데 기말고사는 수업에서 나왔던 내용을 평소에 얼마만큼 생각했느냐가 중요한 서술형 시험이었습니다. 윤리학에 비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성두 교수님의 인도불교철학은 중간에 제가 수술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철학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흥미로운 수업이었습니다. 두 번의 레포트와 기말고사로 성적을 평가하셨습니다. 출석은 가끔 부르십니다. 기말고사는 배운 내용을 잘 암기해 가면 잘 볼 수 있는 서술형 시험으로 출제됩니다. 서양근대철학은 제가 들었던 철학 강의 중 가장 재미있었던 수업입니다. 매 시간 인터넷으로 댓글과제를 제출해야하고 두 번의 시험과 한 번의 레포트로 이루어져있는 수업입니다. 지치기는 하지만 그만큼 얻어갈 것이 많은 수업이었습니다. 댓글과제는 까먹지 않도록 메모나 알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험은 내용을 암기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만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기 이전부터 철학과를 선택하려는 마음이 확고했었기 때문에 전담 강의가 제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모르겠는 학우라면 당연히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배정받은 반의 학우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친해지게 되셨으며, 반 생활은 어떠셨나요?**

반의 학우들과 친해지는 데에는 술자리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어색하게 대하던 친구도 술을 마시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 금방 친해졌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나 진솔한 고민 등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사이가 더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술자리 뿐 아니라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거나 여행을 같이 갔던 것도 친해지는 데에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반에서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놀았지만 반 차원에서 하는 행사에는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의 일원으로서 내야 할 돈을 내거나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정도에 그쳤고, 동아리를 비롯한 학교의 다른 집단에서의 활동을 더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반 자체에 대한 소속감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학에서 처음 배정받은 집단이 반이겠지만, 반 이외에도 자신이 소속될 수 있는 집단은 무수히 많습니다. 자신과 맞는 단체를 잘 선택해서 행복한 대학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정받은 반이 제게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미친 영향은 없었지만, 제 전공이 아닌 반에

있는 것이 타 전공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 3. 전공강의 혹은 학회 등을 통해 진입하신 전공 학우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나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껏 들었던 철학과 강의들은 조별과제와 같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적은 없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학생과 이야기하며 친해진 경우는 있지만 강의로 인해서 친해질 기회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또한, 학회도 반 차원에서 진행되는 학회에는 참여한 적이 있지만, 애초에 철학과 사람들과 잘 알지 못하는 인문광역생의 신분에서는 철학 학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 3-1. 전공설명회에 다녀오셨나요?

전공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전공설명회는 효율적으로 관심있는 전공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철학과 전공설명회에서는 과 소개, 수업 소개, 선배와의 네트워킹 시간이 주어집니다. 혼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접 여러 가지를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참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정 전공을 선택할 것이 확실한 분들은 물론 여러 전공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시면 선택하는 데에 많은 도움 되시리라 믿습니다.

### 4. 진입 과정에서 정보는 주로 어떤 경로로 얻으셨으며,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선후배와 동기, 과 사무실 그리고 과 홈페이지에서 여러 정보를 얻었습니다. 철학과의 경우에는 면접과 지원서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진입 과정에서 조교님께 “혹시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라고 여쭙 적이 있습니다. 조교님께서 절대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철학과 진입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원서는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성적표, (철학수업을 들었다면) 수업 때 썼던 보고서 그리고 (계절 학기를 듣는다면) 계절학기 수강신청현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에는 지원 동기와 앞으로 어떤 분야의 수업을 듣고, 어떤 능력을 발전시키고 싶은지와 같은 앞으로의 목표와 포부를 적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수학계획서를 쓸 때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철학과에 진학하는 이유와 연관된 자신의 모습, 경험, 성격 등이 잘 드러나게만 스스로를 소개하고, 수학계획서는 철학과에 진학해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이고, 그것이 내 미래와 어떻게 연결될 것이며, 철학과에 진학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접이 있습니다. 지원서로 탈락하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접은 면접이 아니라 면담이라고 해도 될 만큼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교수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철학과 선택 동기, 들었던 강의 등을 여쭙보시고 철학 공부에 대한 조언과 여러 덕담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면접이 끝나면 지정된 날짜에 합격여부가 홈페이지에 올라오게 됩니다. 지원서를 진솔하게 쓰고 면접 때 교수님과 별 일 없이 이야기 마치신다면 대부분 합격하실 것입니다.

### 5. 실제로 전공에 진입한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진입 전부터 철학과라고 생각하고 여러 전공들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또한 진입 후에도 전공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문광역에서 과로 진입한다고 해서 두드러지는 생활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입 전/후로 생각이나 만족도 면에

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 **6. 19학번 광역생 분들의 전공탐색 /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팁을 주실 수 있다면?**

19학번 광역생 분들께서 1학년 때부터 전공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공에 대해서 뚜렷한 생각이 없다면 학점에 꼭 신경을 쓰시라고 당부 드립니다. 전공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보면 상경계열로 전과 혹은 복수전공/부전공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상경계열이 아니더라도 인문대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전과를 하거나 복수전공/부전공을 선택할 때 인기 있는 과를 선택하려면 굉장히 높은 학점 커트라인을 맞추어야 합니다. 학점을 챙기지 않고 뒤늦게 전과나 복/부전을 결정한다면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경영/경제/컴퓨터공학 등의 인기전공은 평점 4점 초반대에서 복수전공 커트라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다른 전공을 선택하는 학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전공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지 않다면, 혹은 인기 있는 과를 영두에 두고 있다면 1학년 때부터 학점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학교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배들에게 물어보거나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온 광역생이었고,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19학번 여러분들은 저와 다르게 프로그램들에 많이 참여하셔서 학교생활에 적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외에도 학교 내부에 수많은 동아리/학회들이 있습니다. 학기 초반부터 여러 동아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동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교생활에 적응하실 것입니다. 19학번 여러분의 즐거운 새내기 생활 기원합니다.

인터뷰2) 국사학과 진입 이반 17학번 학우

**1. 입학 이전부터 현재의 전공을 선택할 계획이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무엇을 계기로 전공을 결정하게 되셨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역사학을 전공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2. 배정받은 반의 학우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친해지게 되셨으며, 반 생활은 어떠셨나요?**

학년 초에는 여타 다른 반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엠티도 가고, 일일호프도 하고, 이따금 모여서 술자리도 갖고 하는 식이었죠. 저희 학번은 남학우가 모두 광역생인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모임을 주도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반 생활은 즐겁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 1학기부터는 다들 각자 할 일이 많아져서 반 활동이 뜸해지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다만 그래도 조금씩 노력했으면 아직까지도 반 활동이 좀 지속되진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3. 전공강의 혹은 학회 등을 통해 진입하신 전공 학우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17학번 삼사과 신입생들 거의 모두가 들어야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국사학과에선 한국사특강2라는 수업입니다.) 새날/용화/역동 등 이미 예약생들은 시골벽적으로 뒤에서 모여 있는데 반해 오갈 데 없는 광역생들은 앞자리에 앉아 소외되어 있었죠. 다른 반 광역생들은 그래도 같은 반에서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반에서 혼자 국사학과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전공 수업을 들어가면 혼자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정보의 공유나 정서적 차원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사학과는 학술답사에 의무적으로 3회 이상 참여해야 졸업할 수 있고 학기에 한 번씩 '국사인의 날'이라고 해 교수님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를 갖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같은 전공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학번 학우들과 친분이 없는 광역생은 오히려 3일 내내 소외감만 느끼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진입 과정에서 정보는 주로 어떤 경로로 얻으셨으며,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같은 과 선배가 없고, 아는 선배가 많지 않아 조언을 구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전공과 교양이 뭐가 다른지도 몰랐죠. 그냥 국사학과에서 개설된 수업을 하나 이상 들으면 진입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규정은 전공을 들어야 하는데 뭐가 전공이고 교양인지를 몰랐으니까요. 실제로 저희 학번에는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진입하지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

**5. 실제로 전공에 진입한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진입 후에 달라진 점은 많지만 진입했기 때문에 달라진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했더니 여러 선배님들과는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됐지만 여전히 같은 학번 학우들과는 잘 알지 못합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친해진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조별과제를 하면 오히려 원수지는 경우가 많아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공은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

이 듭니다. 방대한 사실의 암기나 논리적 정합성 같은 것들이 환영받는 반면 제가 애당초 관심가지고 있었던 인간 내면의 이해 같은 것들은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 **6. 19학번 광역생 분들의 전공탐색 /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팁을 주실 수 있다면?**

국사학과의 시험들은 대개 통글인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생활에서 논술 수업을 따로 받지 않았다면 이런 능력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내신이나 수능 시험에 익숙해있던 학생들로서는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국사학과 교양을 들으면서 시험 유형에 익숙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양과 달리 전공에선 단답형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통글을 쓰다보면 항상 논리 구조를 살려야 하는 건지 디테일을 살려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글씨를 빨리 쓸 수 있으면 답안 작성에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나마 연습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인터뷰3) 미학과 진입 사고뭉치반 17학번 학우

**1. 입학 이전부터 현재의 전공을 선택할 계획이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무엇을 계기로 전공을 결정하게 되셨나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서울대학교에 미학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능성에 제일 높은 방향으로 서울대 수시를 지원하다보니 인문광역을 선택하게 되어서 일단 서울대에 들어가서 과와 복수전공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생각으로 인문광역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평소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학문적 지식 보다는 철학적 사고와 말하기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 철학과 학우들이 모여 있는 사고뭉치반으로 배정 되었고 철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하고 고민할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미학과 이야기가 나서 전공탐색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철학에서 다루는 정치학 윤리학 등의 문제에는 사실 흥미가 없었으며 인간의 감정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생각에 흥미가 있었고 더불어 저는 예술 패션 관련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던 터라 '아름다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철학인 미학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미학교양이나 전공과목은 미학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학이 어떤 것을 다루는 학문인지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업이 흥미롭고 제가 원하는 부분을 다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훈교수님의 '예술과 천재론'이 다른 강의들 보다 미학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강의였습니다. 2학년 전선으로 배정되어있는 과목이라 신입생은 조금 어렵고 난해하다 느낄 수도 있지만, 정말 아름다움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사고하는 흥미로운 강의였습니다.

**2. 배정받은 반의 학우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친해지게 되셨으며, 반 생활은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신입생 때에는 저는 반 생활을 거의 안 해서 많이 친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대학에서 동아리나 다른 활동 친구보다는 과 친구들이나 반 친구들이 오래가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 반방에 들어서 같이 밥 먹고 회식에 참여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듣고 싶은 강을 위주로 1학년을 보내다 보니 철학과 친구들과는 겹강이 잘 없어서 친해지기 힘들었는데 하나정도 같은 강의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철학과 학우들 덕분에 철학 전반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철학의 분과인 미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특별한거 보다는 반방에 가면 항상 반겨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3. 전공강의 혹은 학회 등을 통해 진입하신 전공 학우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다만 철학과 친구들이나 지인을 통해 물어 물어 수업이나 전공에 대해서 알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신입생이 정말 정보가 적어서 힘든 것 같습니다.

**4. 진입 과정에서 정보는 주로 어떤 경로로 얻으셨으며,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타입이었습니다. 학교, 학과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반 학우들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전공 진입의 경우 미학과는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성실히 지원서만 쓰고 면접에 참여만 한다면 다 통과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미학관련

수업시 들었던 과제물을 하나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의 하셔서 탐색과목을 미리 하나 들어두는 것도 추천합니다.

**6. 19학번 광역생 분들의 전공탐색 /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팁을 주실 수 있다면?**

전공은 자신의 진로나 흥미를 반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어문계열로 진입하려는 친구들은 처음 도전해 보는 언어 같은 경우에서 성급한 진입 보다는 수업과 졸업과정을 충분히 살펴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취업을 고려해 서어서문학과도 영두에 두었다 처음 도전하는 언어라 졸업에 부담이 커서 중단한 경우입니다.

학교생활 같은 경우는 적극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당연히 힘들겠지만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이니 너무 그것에 매여 있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4) 국사학과 진입 새날반 17학번 학우

**1. 입학 이전부터 현재의 전공을 선택할 계획이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무엇을 계기로 전공을 결정하게 되셨나요?**

처음부터 국사학과 진입을 희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막연히 동양사학과를 가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사학과도 영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입학할 때까지 해도 동양사학과 쪽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배정받은 반이 국사학과반이었고, 주로 만나는 선배들과 동기들이 대부분 국사학과 사람들이라보니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동양사학과 수업이 대체로 로드가 많기도 하고, 수업 자체도 어렵다는 선배들의 말과 국사학과로 오라는 회유(?)에 넘어가기도 했고요. 물론 평소에도 국사과목을 좋아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사학과로 진입하기로 마음을 굳힌 후, 전공과목을 들었기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2. 배정받은 반이 학교생활/전공선택에 미친 영향이 있었나요?**

전공을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입할 학과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왕 전공을 고를 수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흥미 있는 내용을 다루는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선배들, 동기들이 많은 과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불안감을 덜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 전공강의 혹은 학회 등을 통해 진입하신 전공 학우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나요?**

국사학과 수업은 아니지만 서양사학과 전공 수업을 통해 조별활동으로 타과 학우들을 만날 기회가 있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팀플이 없는 수업이라면 다른 학우들과 새롭게 교류할 기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진입 과정에서 정보는 주로 어떤 경로로 얻으셨으며,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새날반에서 국사학과로 진입할 것으로 마음을 정하기는 했으나, 진입 과정에 대해서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딱히 정보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주변 선배들은 애초부터 국사학과를 선택하여 입학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들어와서 타 학과로 전공 진입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며 진입 면접과 지원서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6. 19학번 광역생 분들의 전공탐색 /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팁을 주실 수 있다면?**

너무 빨리 마음을 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학과를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후회가 남기도 하는 부분이, 너무 성급하게 분위기에 휩쓸리듯이 학과를 정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전공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시야를 넓게 갖고 가능성을 여러 곳으로 열어두고 고민했다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미나 관심사, 진로, 졸업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잘 따지셔서 선택하시길 바라요.)

인터뷰5)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진입 여명반 18학번 학우

**1. 입학 이전부터 현재의 전공을 선택할 계획이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무엇을 계기로 전공을 결정하게 되셨나요?**

입학 당시에는 영문과 진입을 희망했는데 전담을 듣고 포기했습니다. 역사적 맥락 등 배경 지식이 많지 않으니 힘들더라고요. 영어영문 외에는 생각해본 전공이 없어 고민하다가 어렸을 때 동남아에 잠깐 살았던 기억이 도움이 될까 해서 동남아 전공 수업을 듣고 진입을 결심했습니다. 수강한 강의는 '동남아시아 문명의 이해'였는데 로드가 너무 많았습니다... 올해는 동문이 담당 교수님이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수업 이름은 문명의 이해지만 사실상 현대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비중이 크고 대륙부는 안 다룬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수업 자체에는 불만이 있었지만 동남아 전공의 신선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껏 배워본 적 없는 학문이라는 느낌을 주었고 전공 선택에 기여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배정받은 반의 학우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친해지게 되셨으며, 반 생활은 어떠셨나요?**

사실 입학했을 때에는 반 학생회가 없어서 행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 학회 활동을 하면서 반 학우들과 친해졌던 것 같네요. 또 공강 때 반방에 주로 있었는데 반 행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학우들을 만날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속 학과가 없는 계열생 입장에서 반이라는 공동체가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전공 진입 등 행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반이니까요. 전공선택과 관련해서도 반 사람들에게 전공 이야기를 많이 듣다보니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았나 합니다.

**3. 전공강의 혹은 학회 등을 통해 진입하신 전공 학우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나요?**

배정된 반과 진입한 학과가 일치하니 전공 학우와의 교류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업도 같이 듣고 학회도 반에 소속되어 있으니까요. 전공설명회의 경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설명회가 있을 때에 개인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4. 진입 과정에서 정보는 주로 어떤 경로로 얻으셨으며,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같은 학과에 배정 신청했던 반 선배들과 학과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일정은 광역생 단독에서 공지해 주셔서 조금 앞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제시된 예시가 없다 보니 어떤 이야기를 써야할 지 몰라 조금 막막했습니다. 결국 잘 완성하기는 했지만 전공 진입 시 필요한 서류의 표본?같은 것이 있었으면 조금 편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수학계획서는 진입 후 들을 수업들 위주로 나열하다시피 작성했고 전공 특성 상 영문 자료들을 접할 필요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도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면접 때 교수님께서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에 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물어보셨던 것 같네요. 전공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이요. 심화질문은 없었고 면접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5. 진입 후 변화를 기대하는 점 혹은 진입생으로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전담 수업의 내용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서 전공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전필 수업인 아시아언어문명론입문을 들으면서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제가 선택한 전공인 만큼 애정을 갖고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 19학번 광역생 분들의 전공탐색 /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팁을 주실 수 있다면?**

전공 진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번거롭기는 하지만 큰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학과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 전공 진입을 완료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고동**

**: 시작을 알리는 소리**

인터뷰6) 서양사학과 진입 용화반 18학번 학우

**1. 입학 이전부터 현재의 전공을 선택할 계획이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무엇을 계기로 전공을 결정하게 되셨나요?**

입학하기 이전부터 서양사학과에 들어오기로 마음먹고 있었으며, 전담을 듣지 않고 진입 함. 그 이유는, 서양사학과와 전공탐색 과목은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고, 진입 시 전공을 듣는 것이 필수 요건도 아님. 또한 본격적으로 전공탐색을 고민하는 18-2학기에 열리는 서양사 전담 과목이 어렵기로 소문난 사상사 과목이었기 때문에, 듣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음. 따라서 전담 강의가 전공 진입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힘들 것 같음.

**2. 배정받은 반의 학우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친해지게 되셨으며, 반 생활은 어떠셨나요?**

용화반은 동양사학과 반이고, 본인은 서양사학과를 지망하고 있던 터라 그나마 같은 사학계열이라는 동질감(?) 안에서 친해질 수 있었던 듯함. 삼사과(국사 동사 서사) 통합 수업도 용화 안의 동사 친구들과 함께 들을 수 있었고, 운이 좋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듯. 다만 용화반 자체가 기본적으로 학생회도 매우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이 많은 반이기 때문에 학과와 상관없이 반 학우들이 모두 용화반이라는 이름 아래 친해지기 편했음. 반 생활은 학과 진입에 관한 정보를 듣기 어려운 것 빼고는 다 좋았음. 다만 윗 학번 동사과 선배들이 서사과에 관한 정보를 조금 알고 계셨는데, 접점이 많지 않은 어문/철학 진입희망 친구들은 좀 어려웠을 것.

소속 반이 전공선택에 미친 영향은 딱히 없음. 다만 앞서 말했듯이 그래도 같은 사학계열 반이라 서양사 진입을 마음속에서 공고히 하게 된 면은 있을 듯. 또한 동양사 전공 학우들을 보며 동양사는 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도 함.

**3. 전공강의 혹은 학회 등을 통해 진입하신 전공 학우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나요?**

앞서 말한 삼사과 합동 수업(한국사특강2)을 통해 몇몇 서양사학과 친구들과 얼굴을 익힐 수 있었음. 다만 수업과 조별과제를 통해 친해지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 고학번 광역생 선배께 여쭙 보니 광역생은 학번이 올라갈수록 반에도, 과에도 적을 두지 못하고 부유하는 존재가 되어 간다고 함. 나를 비롯한 인문광역생 학우들도 이에 관한 고민이 큰 듯 하고. 인문대 학생회 차원에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문광역생과 전공예약생을 연결해 주고, 또한 반 학생회 차원에서도 인문광역생이 반의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성이 커보임.

서양사학과 전공설명회는 다녀왔음. 그러나 설명회 내용이 과사에 찾아가서 조교의 설명을 약 5~10분 듣고 오는 것이 다였고, 제대로 공지도 되지 않아 참여자가 본인을 포함하여 2인밖에 되지 않았음. 전공 설명회의 내용 역시도 현재의 연구 실적, 교수님들과 연구 분야, 진로, 수업 소개 및 커리큘럼, 졸업요건 등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당장 어떻게 하면 진입을 할 수 있는지’라는, 진입 요건을 갖추는 방법(서류 등)에 국한되어 있어 매우 아쉬웠음. 이는 비단 서양사학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진입생이 많이 오지 않는, 소위 ‘비인기과’ 모두의 문제인 듯. 기본적인 자료집 등을 배포하여 진입 이전에 정보를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4. 진입 과정에서 정보는 주로 어떤 경로로 얻으셨으며,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전공선택 및 진입 과정에서 정보는 융화반에서 서양사를 진입하신 14 선배로부터 얻을 수 있었음. 다행히 몇 번 전에 된 적도 있었고, 서양사 진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어 강의 및 커리큘럼, 교수님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

서양사는 전공 면접이 없었고, 자기소개서와 기존 수업에서 냈던 역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음. 다만 면접이 없다는 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과사에 문의를 가서야만 ‘아직 면접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음. 행정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

#### 5. 진입 후 변화를 기대하는 점 혹은 진입생으로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다짐은 딱히 없음. 다만 서양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좁고 깊은 학문이라기보다는 넓은 학문이기 때문에, 분야를 한정짓지 말고 외교사, 사회사, 전쟁사 등 넓은 분야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음. 광역생 신분은 아무래도 적을 둔 곳도 (반 외에는) 없고, 무엇을 해야 하나 우왕좌왕하는 상태였다면 지금은 학교에 적응도 어느 정도 했고, 확실한 소속도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음.

#### 6. 19학번 광역생 분들의 전공탐색 /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팁을 주실 수 있다면?

전공에 진입하기 전에 전공강의는 들어볼 것. 본인이 교양만 듣고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초에 인문대학 안에서 흥미를 갖고 공부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과가 서양사학과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아직 확실한 길을 정하지 못한 광역생 친구들은 리스크를 조금 감수하고서라도(드랍제도가 있으니!) 전공을 듣고 진입하기를 권함. 또한, 실제 경험한 것이지만 1학년 내내 뭔가 어디에도 끼어있지 못하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보는 어디서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선배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음. 본인도 선배를 통해 많은 정보를 구했고, 아무리 까마득한 학번의 선배라도, 과로 진입하겠다는 후배들에게 정보를 아끼는 선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됨! 또한 인문대 학생회, 반 학생회 등에도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임. 무엇보다도,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쓸모없는 학문을 하는 인문학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한 학교생활 하시길 바램!

: 시작을 알리는 소리

인터뷰7) 영문과 진입 용화반 18학번 학우

**1. 입학 이전부터 현재의 전공을 선택할 계획이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무엇을 계기로 전공을 결정하게 되셨나요?**

원래 영문학과 진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시로 학교에 입학한 거라 영문학과에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점수에 맞춰 지원을 한 것이라 영문학 공부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전공탐색 강의를 들어보니 배우는 내용이 꽤 흥미롭고 성적도 나름 잘 나와서 진입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2. 배정받은 반의 학우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친해지게 되셨으며, 반 생활은 어떠셨나요?**

1년동안 용화반 18학번 뺑대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반 학우들과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워낙 용화반이 가족같은 따뜻한 분위기에서 서로 잘 어울리기 때문에 반 생활이나 적응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특히 반 학생회 차원에서 각종 친목활동을 주기적으로 기획하고 개최하는 등 모든 학우들이 친하게 어울릴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했고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또 처음에는 용화반은 동양사학과라 큰 도움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워낙 영문과에 진입한 광역 선배들이 많이 계셔서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좋을지 등에 대해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전공강의 혹은 학회 등을 통해 진입하신 전공 학우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나요?**

전공탐색 강의를 통해 전공 학우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조별활동도 하면서 꽤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영문학과 원어 연극 동아리의 스태프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동아리를 통해 많은 영어영문학과 학우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4. 진입 과정에서 정보는 주로 어떤 경로로 얻으셨으며,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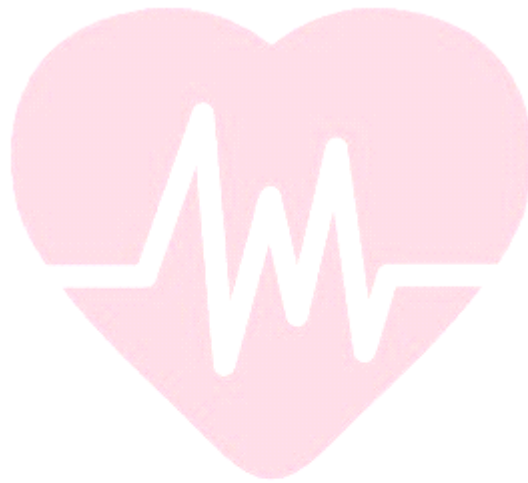
주로 용화반 소속의 영문과 진입 광역 선배들에게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특수한 경우이기는 한데, 영문과 전공 예약 18학번 친구들을 동아리, 중고등학교 동창, 학생회 활동 등에서 거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도 정보를 얻었습니다. 사실 제가 영문학 공부를 하게 될 줄은 학창시절에는 생각도 못했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게 많고 영문학에 대한 관심도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공 면접과 지원서를 준비할 때, 영문학에 대한 학습 열정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5. 진입 후 변화를 기대하는 점 혹은 진입생으로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문학 공부가 아예 적성에 맞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 학문을 주전공으로 계속 두기에는 제 열정과 지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전과를 준비 중입니다. 영문학은 딱 '흥미' 수준으로 남겨두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원래 꿈꾸고 생각하던 경영학과 쪽으로 전과한 뒤 영문학은 부전공으로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목표가 있다면 2학년 내로 영문학 부전 조건을 모두 마친 뒤 깔끔하게 3학년부터는 경영학 전공을 들으면서 지내려 합니다.

**6. 19학번 광역생 분들의 전공탐색 /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팁을 주실 수 있다면?**

솔직히 정시로 인문광역에 입학한 친구들 중 많은 학생들이 저와 같은 방향과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용화반 중에도 인문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전과를 한 선배님들도 꽤 있구요.(물론 인문대의 특정 학과에 대한 뜻을 확고하게 가지고 입학한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거고, 진심으로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1학년때 전공탐색을 하면서 그나마 자신에게 가장 맞는 전공을 선택해서 진입한 뒤, 정 못하겠으면 전과나 복수전공을 하는 등 길이 다양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고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전과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과 티오가 주어지는 과를 선택해서 전공진입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ㅎㅎ



# 고동

: 시작을 알리는 소리

인터뷰8) 언어학과 진입 이슬반 18학번 학우

**1. 입학 이전부터 현재의 전공을 선택할 계획이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무엇을 계기로 전공을 결정하게 되셨나요?**

글로벌인재별전형으로 지원했는데, 전형 상 광역생이어도 특정 학과 하나를 준비해야 했기에 언어교육에 대한 관심을 살려 영어영문학과 쪽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전담을 들어보니 영문학 쪽이 잘 맞지 않아 적응하기 힘들었고, 영어 실력과 별개로 영문 전공을 엄청난 열의로 공부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아 전공을 다시 고민하게 됐다. 1학기 때 수강했던 영어학입문이 적성에 맞는 것을 느껴 언어학 쪽으로 진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 후 언어학과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언어학과에서는 자료와 정보처리 능력이 취업에 도움 되고, 컴퓨터 쪽도 잘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학기는 응용음성학과 언어와 컴퓨터를 수강했다. 처음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공부를 계속해 보니 할 만 한 것 같아 결국 영문과가 아닌 언어학과를 선택했다.

**2. 배정받은 반의 학우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친해지게 되셨으며, 반 생활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노문과 자체가 매우 생소했고, 반 제도에도 익숙하지 않아 친해지는 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시간표 짤 때도 이슬반 예약생들, 다른 광역생과 겹치는 수업이 없어 강의나 전공 관련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화목한 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이후에는 반방을 자주 들르거나 공식행사를 최대한 참여하는 등 전공 외 부분에서 많이 접점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학과 자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원연제, 캠프, 어학연수 등) 때문에 여전히 메우기 어려운 간극이 있었던 것 같다.

**3. 전공강의 혹은 학회 등을 통해 진입하신 전공 학우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나요?**

학과 행사를 통해서도 아니지만, 한창 전공을 고민하던 여름방학 때 단과대 동아리 등에서 학번이 높은 언어학과 선배들을 만나면서 대화할 기회를 얻었다. 나중에는 오히려 언어학과 진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기도 했다.

또한 언어학과 전공설명회를 다녀왔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특히 학과 행사에 대한 소개 및 공식적인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설명회는 교수님과 대학원생 두 분이 주최하셨는데, 그런 연구자의 모습을 보고 전공이 희소하긴 했지만 유의미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다.

**4. 진입 과정에서 정보는 주로 어떤 경로로 얻으셨으며,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영문과 진입조건을 다 채웠음에도 진입하지 못한 게 아쉬웠지만, 두 학과에서 개설하는 강의를 많이 들어보고 열심히 탐색한 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작년 2학기 전공진입을 하기 이전에 전공 선배, 지도교수님들께 지금 내가 전공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조언을 요청했는데, 그 때 진로고민에 대해 공감하고 조언해주신 분들의 도움도 컸다. 의외로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언어학과 홈페이지와 매 학기 수강신청 사이트에 올라오는 강의계획서였다. 그런 정보들을 통해 전체적인 학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 아주 유용했다.

**5. 진입 후 변화를 기대하는 점 혹은 진입생으로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언어학과 사람들을 학과 밖(동아리나 설명회 등)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학과 안에서 더 많은 사람, 특히 17,16학번 선배들을 만나 교류하고 싶다. 학과의 분위기도 파악해보고 싶고, 진로고민 등을 나누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언어학과는 진입생 환영회, 답사여행, 교수님과의 언어조사 등 과 차원의 행사도 자주 여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활발히 참여하려 한다.

이제 진입은 성공했으니 복부전을 고민하고 있는데, 언어학과는 예술적, 이과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연결 가능한 학과 스펙트럼이 넓어서 다양한 학과를 탐색하며 결정하고 싶다.

#### 6. 19학번 광역생 분들의 전공탐색 /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팁을 주실 수 있다면?

전공탐색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권하고 싶다. 광역 반에서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인문대 동아리, 학생회 등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으니 너무 반에 얽매이지 말고 활발히 활동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전공 관련해서 확신이 설 때까지 충분히 고민하되, 무언가 정해졌다 싶으면 미루지 않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보너스 인터뷰) 진입 시 어려웠던 점 & 전하고 싶은 메시지 (설문 응답)

#### 불어불문학과

- 외국어 어문과라는 특성상 진입 희망자가 많이 없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히 요구사항도 많지 않았고 면접도 거의 불문과 소개와 기본적인 본인 얘기를 물어보셨습니다.

#### 언어학과

- 언어학과가 흔하지 않아서 정보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저는 입학 후 언어학과 사이트에서 표준이수과정을 보고 원래 생각했던 과보다 마음에 들어서 진입을 생각하게 됐고, 부모님께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전공진입설명회가 친절하고 상세했으니 꼭 참여하도록 하고, 거기서 필요하다면 질문도 겁내지 말고 하길 바랍니다.

- 국문과와 언어학과 사이에서 고민했는데 언어학과가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됨. 면접, 지원서 등은 준비를 좀 해서 갔는데 그리 중요하지는 않은 듯함. 편한 마음으로 진입하면 될 것 같음.

#### 국사학과

- 면접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상담처럼 편하게 진행되어 좋았다.

- 원래 역사전공학과를 선택하려 했어서 학과 선택엔 어려움이 없었고, 면접도 교수님과 안면만 트는 정도, 잡담하는 수준이라 부담이 되지 않았다. 지원서도 형식상 절차 때문에 쓰는 거란 인상이 강했음.

#### 서어서문학과

- 전공탐색 과목을 뭘 들을까 고민할 때 물어볼 선배가 없어서 막막했음. 온라인 강의평 찾아보거나, 강의계획서 꼼꼼하게 보면서 내가 원하는 강의를 잘 찾아나감으로써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부분인 듯.

- 학과 선택..은 해당 학문의 분위기나 방법론 같은 걸 수업 듣기 전에는 사실 모르니까 수업을 하나라도 꼭 들어보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기왕이면 무난무난한 개론 수업으로다가... 그리고 강의 좋은 교수님을 전공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지원이나 면접 자체는... 인문대 대부분이 그냥 프리패스라서 딱히 부담은 없을 거예요...

#### 국어국문학과

- 어렵게 생각 안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진입했기에 진입 때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준비할 때 학생회에서 전달하는 진입 일정 안내가 가장 유용했습니다.

- 국문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 준비 과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 전공을 꼭 들어야 진입가능한 과가 많아서 다양한 과를 두고 고민할 수 없고, 두세개 과중에서만 골라야 했다.

#### 영어영문학과

- 일단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선배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어서 이번에 진입을 했지만요.. 만일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떨어질 거 같은데..'라는 마음이 들어도 전공진입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했다면, 무조건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이 학과와 맞을까?'로 고민했던 것이었는데,, 1학년의 경우 좀 힘들겠지만 다양한 전공진입과목을 맛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꼭 학점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미리 청강이라도 해놓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충 마음속으로 나는 이공부는 진짜 아니구나~를 생각해놓으면 지원할 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교수님과 면담하기, 선배와 얘기하기 등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교수님께 고민을 얘기하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입 시즌 되어서 부랴부랴 정하지 마시고, 평소에 차근차근 생각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학계획서에 무슨 말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자기소개서와 비슷하게 썼습니다. 내가 이 과를 선택한 이유, 과를 오기 위해 들은 수업과 느낀 점, 과에 진입해서 듣고 싶은 과목과 하고 싶은 일 등등. 사실상 전공진입 과정이 점수를 꼼꼼하게 따져서 탈락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원 내에서는 지원자를 최대한 합격시키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진솔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고고미술사학과

- 구체적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웠다.



**고동**  
: 시작을 알리는 소리